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의 시각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Contents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소개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개요 4

제주문화예술섬 세부 프로젝트 소개 6

Part 1. 2022 제주문화예술섬 — 연결+더하기

제주의 유희공간,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다 10

—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12

— 중문 아트119 22

Part 2. 2022 제주문화예술섬 — 가치+더하기

같이, 가치롭게 지역 문화의 내일을 실험하다 28

—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30

— 거로기록보관소 33

— 2022 가치:가치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가치 나눔: 다 가치(같이)』 36

—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38

— 문화예술섬 제주위크 42

Part 3. 2022 제주문화예술섬 — 예술+더하기

미션 Possible! 제주에서 예술하며 함께 성장하기 52

—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53

Part 4. 2022 제주문화예술섬 — 지혜+더하기

— 라운드테이블 68

— 제주 문화지표 조사 및 문화정책 개발 74

— 제주문화예술섬 전략 과제 7 & 특별 과제 76

Part 5. 2022 제주문화예술섬 — 내일+더하기

2022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80

Thanks to — 함께한 사람들

— 모두에게 박수를 90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제주 어디서나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는 제주시 216개 마을,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고유하게 축적해온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마을마다 고유한 문화예술의 봉화를 띄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Jeju Culture & Art Island



Jeju Culture & Art Island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로고는 상하좌우로 뻗어나가는 획으로 섬 곳곳을 가로지르며 문화예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았다.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과정

2016년

- '제주문화예술의 섬 조성 전략'(제주연구원, 2016)
- '제주의 가치 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정책 연구 진행

2019년

- '제주문화예술의 섬 활성화 전략'(제주연구원, 2019)
- 제주 도민과 도내 예술가, 제주 이주민, 국내외 예술가가 연결되어 함께예술을 향유하고 즐기는 정책 방향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 3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 포함된 개정안 국회 통과

2020년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추진 부서 미래문화팀 신설
- 민간 문화공간 기초 조사 및 분류(전시, 공연, 독립 서점, 커뮤니티)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간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주문화도시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2021년

- 조천리 야학당, (구)중문119센터 리모델링, 오픈식
- <가치:가치 프로젝트> 4개 권역 대표 프로젝트, 권역 무관 우수 프로젝트 3개 선정 및 지원
- 예술요원, 도내 예술가가 협업하여 읍면 문화소외지역 공연 및 교육 진행
- 제주문화예술재단 20주년 상반기 포럼, 하반기 네트워킹 데이 <돌연변이들: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력> 진행
- 2021 제주 문화 인식 조사, 제주문화예술섬 과제 발굴 진행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기관



제주문화예술섬 세부 프로젝트 소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1년까지 진행해온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에 '제주 문화예술의 섬 정책과제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메타기획컨설팅, 2021)'를 접목해 세부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실행하였다. 2022년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 되었을까?

1.

유희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 재생

- **미션** 지역의 유희공간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역 예술인, 기획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간의 예술적 의미를 발견하고 실험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 **관련 사업** '연결공간 프로젝트'
- **키 비주얼**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을 매개로 공간의 확장성을 표현

"구도심의 유희공간보다는 새로운 공간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지역에서도 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2.

문화 거점 기반 지역 문화 활성화

- **미션** 지역에 2개 이상의 민간 문화공간이 컨소시엄을 맺고 지역색에 기반한 지역 단위 문화예술 프로젝트 개발하기
- **관련 사업** '구치:가치 프로젝트'
- **키 비주얼**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하나의 축과 교집합 입체 도형으로 표현



"작은 도서관이나 거리에서 진행되는 지역 밀착형 공연이 필요합니다."

3.

읍·면 문화 소외 지역 문화 서비스 확대: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미션**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도록 지역 밀착형 공연 프로그램 기획하기
- **관련 사업**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키 비주얼** 예술 특기자들이 군 복무 대신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하는 복무 제도에서 착안, 밀리터리 패턴 적용

4.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

- **미션** 마을의 문화예술 중심 공간인 동네책방에서 실험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한 주를 만들기
- **관련 사업** '2022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

5.

문화예술섬 네트워킹 구축

- **미션** 도내·외 문화 기획자와 문화 매개자(지역 현장 활동가, 문화공간 운영자, 문화 정책 전문가, 문화 예술교육 활동가 등)가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문화 트렌드와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기
- **관련 사업** '2022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미래를 위한 실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우리의 실험실'

"다양한 예술인이 모일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제주의 독창성과 다양성, 지역 특수성과 실험성이 공존하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6.

문화예술섬 정책과제 발굴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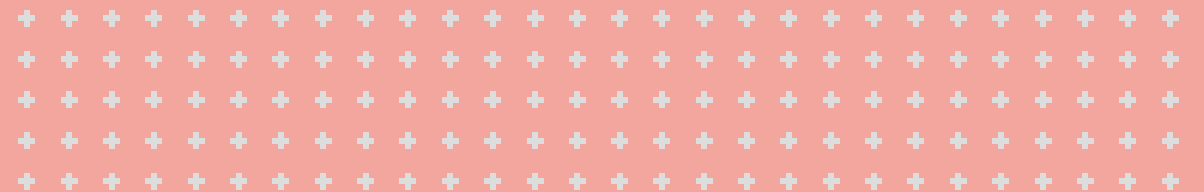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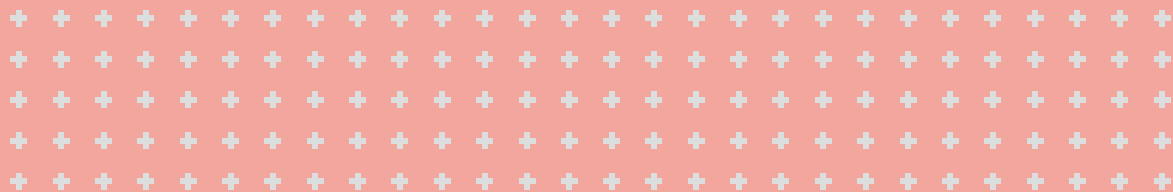
- **미션** 제주 지역 문화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현장 중심의 정책 모델링을 위한 제주 권역별 문화 환경 및 지역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 **관련 사업** 2022 제주문화예술섬 인식조사, 2022 제주문화예술섬 정책과제 발굴, 권역별 라운드테이블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1

연결+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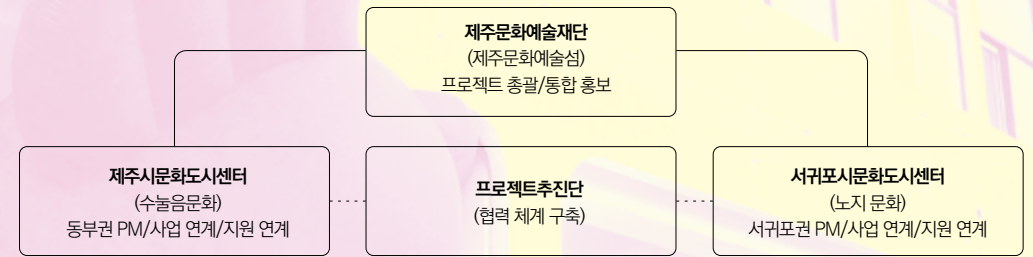


제주의 유희공간 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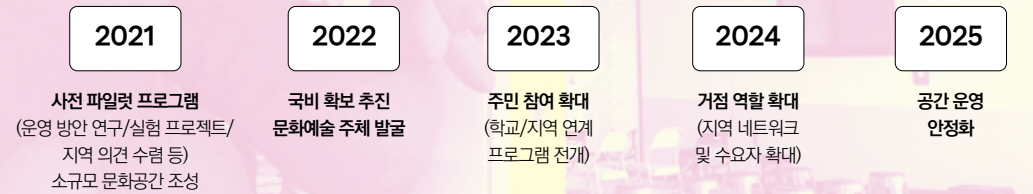
“느슨한 문화공간을 매개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연결공간(連結空間) 프로젝트(이하 연결공간)는 본래 역할을 잃은 유희공간이 지닌 장소성과 가치는 수용하되, 지역의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생동하는 현재진행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공간재생 프로젝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도내 유희공간을 파악한 후 동부권 조천아학당과 서귀포권 중문119센터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해 2021년 첫 사업을 시작했다. ‘연결공간’은 특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의 변신보다는, 지역 주체들이 직접 공간의 쓸모를 고민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서 지속성과 자생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연결공간 프로젝트'의 주역들



'연결공간'이 만들어갈 큰 그림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야학당은 일제강점기 항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운동 공간인 동시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 및 성인의 유일한 교육 터였다. 제주 조함해안로에 위치한 조천야학당 역시 제주도의 대표적인 야학 중 하나다. 야학 운영 당시인 1930년에는 초가였으나, 1970년대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조해 조천성당 부속 건물로 활용되었고, 성당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다가 2009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현재 형태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았기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연결공간'은 조천리 마을의 문화 활동 주체인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를 주축으로 조천야학당을 '용천수문화센터'로 변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2021년에는 동부권 추진단을 결성해 조천리새마을회, 조천리 용천수지킴이 등의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주민 역량을 강화해 자생성을 확보하고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했고, 2022년에는 재단, 지역주체, 전문가가 함께 운영을 논의하는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지역주체 문화적 역량 강화, 마을 브랜드 발굴,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열었다.

2022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의 주요 프로젝트 살펴보기

●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조천리에는 2019년부터 지역 문화 자산인 용천수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가 있다. 강연식 조천리장과 김수정 대표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보존 가치가 높은 마을 자원인 용천수를 탐방하고 알리는 활동을 통해 든든한 지역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연결공간'은 조천리 용천수지킴이가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를 더욱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용천수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든 후 대수층을 따라 흐르다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새를 통해 지표로 솟아나는 물. 제주 용천수는 마을을 이루는 중심점 역할을 했고, 솟아나는 용천수의 수량은 그 마을의 인구수를 결정하는 근간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조천 지역에는 현재 30개 이상의 용천수가 남아 있다.



기간	회차	강사	강의 내용
6/3~6/13 (총4강)	1강	김연주 문화공간 양 큐레이터	문화기획의 개념과 사례
	2강		생태 관련 개념과 사례
	3강	이승연 김택화 미술관장	김택화 미술관, 해외 문화기획 사례
	4강		조천 문화 축제 기획 브레인스토밍
6/17~7/1 (총4강)	1강	김석범	축제의 개념과 사례
	2강	제주축제산업진흥원장	축제 기획과 실행, 평가
	3강	제주도좋아 프로그램	제주도 좋아하는 기획 소개
	4강	기획 및 교육 담당 팀원	바라던 바다 축제 기획 사례 연구

● 문화 인문학 강좌 『호롱불이 밝혀주는 조천읍 드로잉 여행』

마을 속의 나, 일상 속 나를 돌아보며 진정한 나를 찾고 마을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문화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다. 조천에서 드로잉 교육을 진행하는 예술인 안정향 강사가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 그림은 한동안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벽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회차	강의 내용
1회차	오리엔테이션 드로잉, 컨투어드로잉, 블라인드 드로잉 수업
2회차	나만의 선 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펜 드로잉 기초 수채화 발색 표현법
3회차	단순하게 그리는 일상 소품 드로잉 물 번짐 수채화 활용법(하늘, 나무 등)
4회차	조천리 일상 풍경 드로잉 우리 마을 알아가기(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정미소 드로잉)
5회차	우리 동네 조천리 마을 돌담 & 돌담집 드로잉 우리마을 알아가기(돌담 탐색 및 채색하기)
6회차	바닷길에서 만나는 용천수 탐색 & 물 풍경 드로잉
7회차	우리마을 알아가기 (조천리 골목에서 만나는 돌담집 풍경 드로잉)
8회차	용천수 탐방 & 나만의 작품 그리기를 통한 '마을 속의 나' 발견



● 민병훈 감독과 함께하는 『조천마을 스마트폰 영화 아카데미』

영화에 관심이 있는 조천 학생, 주민을 대상으로 영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화 촬영 기술 교육, 촬영 체험, 제작 실습을 진행하는 종합 영화 아카데미이다. 제주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 민병훈 감독이 아카데미를 맡아 주었다. 1기는 조천읍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기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병훈 영화감독 (한서대학교 교수)

러시아 국립영화대학을 졸업해 1998년 <벌이 날다>, 2001년 <관찰아, 울지마>, 2006년 <포도나무를 베어라>로 토리노 국제영화제 대상, 코트부스 국제영화제 예술 공헌상,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 비평가상, 테살로니키 국제영화제 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제주에 거주하며 제주를 배경으로한 미디어아트, 영화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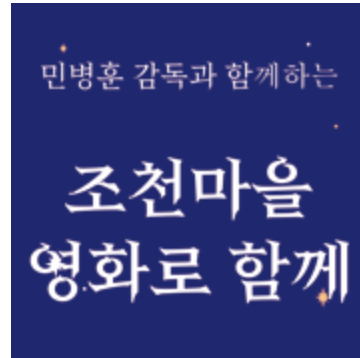


조천마을 스마트폰 영화 아카데미

8/20-9/3 (총 6강) 영화 아카데미 1기: 조천읍 학생 대상 아카데미
12/3-12/18(총 11강) 영화 아카데미 2기: 조천읍 어른 대상 아카데미

● 민병훈 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상영회 『조천마을 영화를 함께』

영화 아카데미 참여 학생, 지역주민, 도민이 함께 조천에서 촬영한 독립영화 '기적'을 감상하고 감독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훈 감독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독립영화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조천읍에 거주하는 어린이, 활동가, 어른들이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조천리용천수지킴이, 파트너스 운영진,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이 함께 준비한 이번 축제는 '용천수와 환경'을 주제로 연극을 결집한 용천수 탐방, 문화 플라마켓,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회화 작품 전시, 영화 촬영 특강, 민요, 색소폰 연주, 합창,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공연으로 하나되는 축제를 진행했다. 탐방 프로그램 중 쓰레기를 주워 오면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통해 쓰레기를 최소화 했고 아름답고 소중한 용천수를 지켜야 한다는 주제를 예술 작품과 공연 등 문화를 통해 풀어나간 축제였다.



① 소리극과 함께하는 조천 용천수 탐방 '순택아, 물질레 글라!'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들이 민요패 소리왓(안민희, 김항례)과 함께 기획하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번 탐방은 소리극을 통해 조천 용천수 포인트를 소개하고 용천수에 얽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환경을 보전하고 지켜나가기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② '신신촌장'과 함께하는 조천 문화 플라마켓

'신신촌장'과 협업하여 조천읍 지역에서 제작한 환경 관련 굿즈, 음식 등을 판매하고 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는 자원봉사팀(조천읍 지역 학부모회 등 참여)과 함께 중상동 경로당에서 국수를 제공해 축제의 흥을 돋웠다. 총 21팀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빛냈다.



③ 마을 동아리, 청년 예술가 예술요원 합동 공연 '조천 음악회: 청음(淸音)'

조천 혼모심 하모니(조천 혼모심 색소폰 앙상블, 조천 혼모심 합창단), 조천 하늘 민요 동아리와 예술요원, 제주에서 활동하는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 여유와 설빈이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연복정의 맑은 하늘 아래 울려 퍼진 아름다운 음악이 조천마을과 주민들을 감미롭게 가득 채우며 축제를 마무리했다.



④ 지역 주체, 지역예술가 전시 '용천수가 흐르는 제주 마을'

조천읍 이웃들이 '용천수가 흐르는 제주 마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10월 13일, 14일 2일간 갖고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예술가 송미자 작가, 홍진숙 작가의 작품 7점과 함께 지역 주체들의 그림 10점을 함께 전시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시가 진행됐고 많은 지역주민, 도민, 관광객이 전시를 찾았다.



⑥ 「나도 영화감독! 민병훈 감독님과 함께하는 축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민병훈 감독이 영화 아카데미 1기 참여 학생과 조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축제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시간을 가졌다. 민병훈 감독과 학생들은 축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축제를 즐기는 조천 주민과 예술인들의 모습을 기록했다.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향후 학생 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 조천리 용천수 지도 제작

조천리 용천수 문화축제를 준비하며 마을의 주요 용천수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다.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기억하고 지켜가기 위한 밑거름으로써 마을을 아카이빙하는 첫 걸음을 뚝 셈이다. 제작한 지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마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인터뷰



Mini Interview

조천리 용천수지킴이 김수정 대표

제주문화예술재단과의 인연은 2021년 연결공간 프로젝트로 시작해 올해 2년이 되었습니다. 용천수 지킴이 활동과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며 마을은 자생할 힘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했어요.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역시 여러 활용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공간과 사람에 더 집중하는 축제와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청정 제주의 물 문화는 제주의 귀중한 유산이며 가치 있는 제주의 자산입니다.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 속에 용천수는 무관심하게 훼손되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조천읍 용천수의 향토 가치를 높이고 지속해서 보전하고 관리 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잘 전달되었기에 주민분들의 자연스러운 축제 참여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경로당을 대관하여 제공했던 잔치국수도 반응이 정말 좋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3호 연복정은 자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제1회 조천리 용천수 '오락' 문화축제는 마을주민 분들의 품에 문화의 향유를 가져다주었어요. 지역주민과 예술가, 기획자, 재단으로 구성된 축제 추진위원회는 알찬 기획과 넘치는 아이디어로 축제 프로그램을 알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원회를 매주 만나며 생긴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물 흐르듯이 축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실정에 맞춘 많은 뒷받침과 노력이 있었기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물 문화의 완성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를 꾸려갈 수 있으면 합니다.

Mini Interview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파트너 김연주 큐레이터

용천수문화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용천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하면 한라산, 오름, 돌, 굴 등을 떠올리지 용천수를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러나 용천수 역시 제주도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용천수는 화산섬이라는 제주도의 자연 특성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더욱이 제주다운 것이고, 제주도 사람들이 용천수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기에 제주다운 것이며, 용천수에는 제주도의 역사와 제주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기에 제주다운 것입니다. 용천수 축제는 이러한 용천수의 가치를 알리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앞으로 용천수문화센터와 용천수 축제가 조천을 넘어 제주도를 알리고 대표하게 되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용천수 운영관장 이숙연 관장

지난 10월 30일,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 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조천읍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행사 체험은 물론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온정 있는 축제였어요. 2021년 제주 문화 예술의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천리 야학당'이 동부권 마을 공공 문화공간 '용천수 문화센터'로 문을 열었고, 이후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축제를 준비하며 많은 문화예술인과 용천수 지킴이분들, 그리고 조천읍 주민 분들과 '용천수 문화센터'라는 공간이 가진 문화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센터에서는 제주의 '용천수'를 테마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행사들은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역의 유휴 공간이었던 야학당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문화 예술의 거점이 되고, 온기가 생기는 것은 지역 문화 예술 향유와 발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문화축제를 자축하며,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중문 아트119



서귀포 중문동은 중문관광단지가 개발되면서 제주 여행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곳이지만, 오히려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향유할 문화예술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연결공간'은 중문동에 자리한 지상 3층의 옛 중문119센터 건물을 공간 재생 사업의 거점으로 선정해 문화예술의 허브를 구축하는 '중문119아트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서귀포권 추진단은 지역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2021년에는 소방서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탐색함으로써 미래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 위탁을 통한 운영 방안 연구와 아카이빙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2022년에는 운영 방안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했고, 꿈꾸는 예술터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에는 공간 리모델링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 사고하고 실험하는 「아트랩119」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중문아트119 공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와 협력하여 공간활용과 문화기획에 대한 연구와 현장수업을 진행했다. 아트랩119는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예비 기획자와 현업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이 주체가 되어 중문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하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16강으로 진행된 수업을 통해 문화재생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실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 실행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획자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과 활용에 대한 방안을 통해 중문아트119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했다.

● 기획 프로그램 [ART ROOM 119]

「아트랩 119」 참여 기획자 6명이 참여하여 10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 #중문동, #119,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참여형, 체험형,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의 아동, 청소년, 발달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전시, 공예 체험 등 생활에 밀착하여 환경을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환경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제주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문화재생 수업 기간

3/5~6/16 (총 16강) <유희공간 활용 문화재생> 강의 및 현황 연구, 실습

기획 프로그램 [ART ROOM 119]

10. 22.(토) 14:00~16:00 ART ROOM 119 기후위기 키워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Balance of the body & soul

중문동의 80여명 주민들을 대상으로 몸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문아트119와 퍼시픽 리듬 잔디밭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몸의 균형과 중심을 탐구하고 올바른 자세로 몸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총 8강으로 진행된 이 수업은 이은희 요가강사와 곽은 무용가가 맡아 진행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신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코로나19로 누적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Balance of the body & soul

- 6/29-7/7 (총 4강) Balance of the soul 자연을 벗삼아 심신을 단련하는 요가 명상 워크숍
- 7/7-7/28 (총 4강) Balance of the body 나의 몸을 점검하고 회복하기 위한 신체 탐구 워크숍

● 기획 프로그램 「예술로 소랑소랑」

중문에서 활동하는 예술 단체와 예술요원을 연계하여 중문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8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이 수업은 김미리 강사가 컵타와 재즈 피아노를, 김정숙, 박익영 강사가 국악을, 김오성 강사가 드럼을 담당해 수업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예술요원 이준섭, 이현준, 제주 예술가 조은별 소리꾼이 참여해 교육으로 중문 학생들과 소통하며 문화를 확장해 나갔다.



예술로 소랑소랑

- 8/30-11/1 (총 10강) 컵을 활용한 난타, 컵타의 기초 및 실습 수업
- 8/31-11/2(총 10강) 장구의 기초부터 연주까지 이루어지는 실습 수업
- 9/2-11/4(총 10강) 드럼의 기본과 밴드 연주법 수업

● 기획 프로그램 [JMF 119]

2021년 (구)중문 119센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개최되어 성황리 마무리되었던 [Open Mike 119]를 발전시켜 도내·외 청년 예술가들이 연대하여 만드는 음악 플랫폼 '중문 뮤직 페스타(Jungmun Music Festa 119)'를 개최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제를 목표로 국악, 포크, 재즈, K-pop 등 다양한 장르로 활동하는 청년 아티스트들이 중문아트119를 아름다운 연주와 목소리로 물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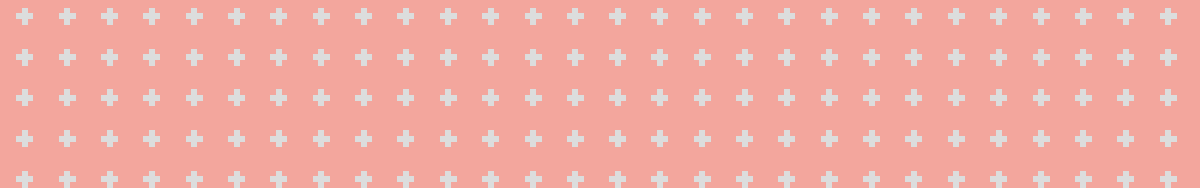
JMF 119 공연 내용

- 일시/장소 11/6 14:00~15:30 / 중문아트119
- 공연 순서 및 출연자
- ① 예술로 소량소량
 - ② 민지오
 - ③ 무드트리
 - ④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 ⑤ 섬의 편지
 - ⑥ 김수정
 - ⑦ 여유와 설빈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2

가치+
더하기



같이, 가치롭게 지역 문화의 내일을 실험하다

문화공간이 협업해 지역 자원을 연결한다면 어떤 새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치:가치 프로젝트’는 민간 문화공간과 함께 제주도 지역 문화의 미래를 실험하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차별점은 민간 문화공간 두 곳 이상이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2021년의 7개 공간에 이어 2022년에는 총 2팀의 컨소시엄이 가치로운 제주의 문화예술 확산에 동참해 주었다. 지난 11월 25일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린 ‘2022 그치:가치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가치 나눔: 다 가치(같이)』’는 2021년에 선정되었던 컨소시엄 중 2팀의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네트워킹을 진행했고, 한해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다음 해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며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했다.

그치:가치 프로젝트, 어떤 의미일까?

- ① 그치:가치 → 함께(together):가치(value)/함께하는 지역 문화의 가치
- ② 그치 → 고치(함께)/다양한 주체를 창조적으로 연결
- ③ 가치 →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과 믿음/사람을 움직이는 힘

그치:가치 프로젝트

‘그치:가치 프로젝트’의 주역들

- 사업 주관**
제주문화예술재단
- 그치가게 파트너**
민간 문화공간 네트워킹
- 프로젝트 기획 진행**
민간 문화공간
- 그치가게 파트너**
전문가 컨설팅

선정 프로젝트 ①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소심한 책방 × 책약방

#제주 동부권 #함께만드는 가치 #마을 아카이빙

소심한책방

2014년도 5월, 제주에서 동네책방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 책방이다. 종달리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를 엮어 2권의 책으로 출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야기를 종이책으로 남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의 기록을 중점적으로 작업했다.

책약방

모두가 지키는 책방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 책방이지만, 마을의 이웃들과 아이들이 사랑방처럼 오가는 공간이다. 종달 초등학교 후문 앞에 자리하고 있어, 아이들이 책방자기를 자처하며 공간을 돌보기도 하고, 제주를 이해하고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왔다.

'소심한 책방×책약방'의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사라지고 있는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후대에 전승하고 마을의 거주민과 마을 예술가, 상점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공감과 소통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종달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주 신화 워크숍을 열었다. 구술 채록과 어르신의 사진 기록들을 함께 엮은 결과자료집을 제작했으며, 제주 신화 워크숍에는 종달리의 학생과 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 관광객도 참여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함께한 성과공유회는 노인회 어르신과 종달초등학교 사회 시간과 연계하여 마을 전체의 축제로 진행했고, 작은 결과 전시회도 열었다.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과 함께해준 종달리의 로컬 크리에이터

누름스튜디오

가르송필레

쇼룸598

소심한책방

책약방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프로그램

① 종달리 마을 탐방

마을 탐방 프로그램은 책약방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가치+가치 프로젝트를 통해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의 이름으로 체계적인 동선을 만들어 진행했다. 기획자를 비롯하여 참여 예술인 전원이 참석하여 프로젝트 시작 전 프로로그를 진행했던 의미있는 행사이다.

② 제주 민요 시연

영장소리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수일 어르신들의 제주 채태운 어르신들이 마을 탐방 마지막 순서를 '진토굿파는 소리' 시연으로 장식해 주었다. 제주의 옛 풍속이 사라지면서 잊혀져가던 제주 민요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③ 구술채록

1. 기록: 종달리 동네 사랑방, 승희상회 부부 이야기, 출 베는 소리 채태운 어르신 이야기, 종달리의 신앙, 종달리 해녀의 일상, 시집살이 며느리의 반란 등 어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기록했다.
2. 사진: 누름스튜디오 박근주 작가가 맡아 진행했다. 구술채록을 하며 있었던 많은 일들을 사진으로 담았다.
3. 영상: 정선녀 작가가 맡았다. 책약방 유튜브를 통해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의 구술채록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업로드하였다.

④ 종달스타일

'종달리' 동네의 집, 식당, 상점, 미용실, 서점, 스튜디오, 디자이너숍 등 다양한 공간이 콜라보하여 '종달리'의 고유한 문화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원주민, 이주민, 어르신과 젊은이들, 경계, 예술, 일상이라는 벽을 넘어 다양한 만남을 가졌다. 마을의 공간과 사람, 세대를 연결하며 동시에 '종달리'의 문화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멋진 모델이 되어주는 '시니어 모델'을 콘셉트로 마을의 공간인 누름스튜디오, 가르송필레, 세바피가 참여해 주었다.

⑤ 어린이를 위한 제주 신화 <이웃에 사는 신들> "바람의 신 영등할망 이야기"

제주의 신화를 종달리의 신앙, 생활과 연계하여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춤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다.



⑥ 종달리 지도 제작

종달리의 역사,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종달리 역사. 문화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종달리에 위치한 식당, 카페, 숙소, 관광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달리 지도'를 제작하였다.



⑦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전시

6개월간의 장정을 담은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전시는 오프닝에 마을 주민을 포함한 6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주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⑦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아카이빙 서적 발간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를 전하고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아카이빙북을 발간했다. 공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정서의 역동을 창의적인 창작물을 통해 기록했다. '종달리'의 자연, 역사, 문화가 지닌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 프로젝트 ②
거로기록보관소

문화공간 양 × 코마

#제주권 #예술로 기록되는 기억 #마을 아카이빙

문화공간 양

2013년 2월부터 시작된 공간으로, '살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술'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예술가를 지원하고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시도를 하며, 새로운 예술 담론을 현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을의 역사를 예술로 재해석하며 제주도 예술을 연구하는 활동 역시 지속해오고 있다. 개인전, 단체전 등 전시, 공동체 예술 프로그램, 인문 세미나, 강좌, 워크숍, 예술가 레지던시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코마-빌리진 스튜디오

사진,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아카이빙 자료 제작이 가능한 공간으로, 창작공간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화북프로젝트(Villizine)를 문화공간 양 맞은편 공간에서 진행하였고, 올해를 기점으로 원도심으로 이주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공간은 스튜디오를 겸하는 행사 공간 '화이트존'과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화공간 양×코마'의 <거로기록보관소>는 600년의 역사를 가졌으나 4·3사건을 기점으로 역사의 흔적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로마을을 배경으로 마을 주민의 기억 속에 있는 역사를 보존하고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예술로 기록된 거로마을의 아카이브를 '거로기록보관소' 공간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축 하였고, 예술가들이 마을의 자료를 통해 작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거로기록보관소>는 아카이빙을 위한 공간, 홈페이지 구축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세미나 개최, 소리 채집 및 강의, 구술 채록, 사진 기록, 작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을을 기록하고 후대를 위해 보존하는 여러 활동을 진행했다.



<거로기록보관소>와 함께해준 로컬 크리에이터

장현영 작가

김지연 작가

허성우
피아니스트

이현태 작가



거로기록보관소 프로그램

① 아카이브 세미나

마을을 본격적으로 아카이브 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를 하며 도민과 나누기 위한 아카이브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아카이브의 개념, 예술계에서의 아카이브 활동 등에 대한 강의로 총 3강으로 구성되었다.



1. 아카이브 세미나: 도래할 아카이브

황선영 미학자의 강의로 '거로기록보관소' 에서 진행되었다. 아카이브를 위한 주제로 1강 '데리다의 해체구성' 2강 '도래할 아카이브'로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2. '수집'의 미적 의미와 아카이브 총동

홍지석 단국대 교수를 초청해 같은 '거로기록보관소'에서 진행하였다. 예술계에서 이루어지는 아카이브의 의미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② 기록: 마을 행사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마을 행사에 대한 기록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이전 8년간 꾸준히 마을의 행사를 사진으로 남겨주었던 사진작가 조은장과 함께 다시 마을 행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③ 4·3 예술, 아카이브

소리 채집 워크숍을 진행하고 양철수 문학박사의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이전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빈센트 작가와 진행했던 소리 채집 워크숍을 발전시켜 진행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4·3과 관련되어 있는 거로마을의 장소를 찾아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채집하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은 4·3과 예술을 접목시킨 아카이브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③ 기록: 장소

박상용 작가의 '큰터왓' 작품을 통해 마을의 중요한 장소, '큰터왓'의 장소적, 역사적 이야기를 아카이빙 했다. 박상용 작가는 큰터왓에서 벌어졌던 4·3사건에 대한 기억을 재를 이용한 작품으로 표현하여 기록하였다.



④ 기록: 인물

거로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계셨던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을의 인물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을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기록함으로써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로마을'에 대한 기억을 아카이빙 할 수 있었다.



⑤ 기록: 물건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앨범 전체를 디지털화 하고 기록하는 시간을 통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아카이빙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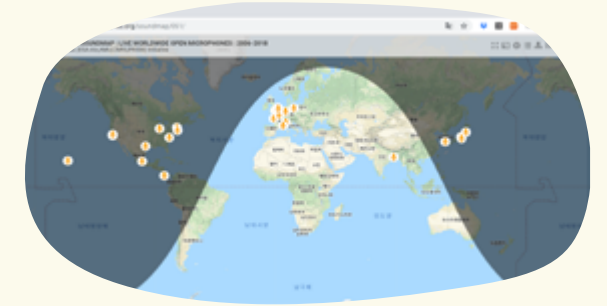


⑥ 작곡

거로마을에서 일어난 4·3사건에 대한 기억과 거로마을 풍경에 대한 시조를 주제로 2곡을 작곡했다. 프로젝트 이전에는 4·3사건에 대한 곡만 작곡 했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마을에 대한 문화와 기록에 대한 곡을 작곡하고 아카이빙했다.

⑦ 스트리머 재설치

전세계로 '문화공간 양'의 소리를 방송해주던 스트리머를 재설치 하였다. 스트리머 재설치로 기록된 거로마을의 소리를 전세계로 방송하는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었다. 고장으로 올해에는 참여하지 못한 전세계 스트리머 설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리머 행사에 2023년부터 다시 참여할 예정이다.



2022 7치:가치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가치 나눔: 다 가치(같이)』

7치:가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해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성과공유회에는 2022년 프로젝트의 주인공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거로기록보관소 팀 뿐만 아니라 2021년 7치:가치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었던 '몬딱' 김민수 대표, 와이즈모션 최성봉 대표도 참여해 주었다. 행사는 각자 한해의 성과를 나누고 네트워킹 하며 2022년 7치:가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한해동안 컨설턴트로 참여해주었던 김종현 더큰내일센터장, 최정한 공간문화센터장도 참여해 사업에 대한 총평과 함께 지속가능성과 제주 마을 문화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7치찾게 파트너(전문 컨설턴트) 프로젝트 총평



김종현
더큰내일센터장

1. 거로기록보관소

학습과 강화를 통해 방법론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카이빙의 방법론을 차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공간을 운영하시는 주체께서 잘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작품화되고 작품들의 가치가 인정받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효능감이 증대되고 참여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2.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각기 개성과 특성이 명확한 공간과 주체들이 클러스터링 되어 개성은 유지하면서 협력한 작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성과 협력이 시너지가 나는 클러스터링 방식이 고도화되면서 지역을 발전·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정한
공간문화센터장

1. 거로기록보관소

마을 뮤지엄 형식을 기반으로 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공동체 형성을 예술 작업을 매개로 진행한다는 기획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거로기록보관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콘텐츠화를 위한 과정 설계, 실행 계획이 뒷받침되면 파급력이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출판을 매개로 한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중요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향후 이를 지속해서 콘텐츠화하여 운영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가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세대들의 삶이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1.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소심한 책방
현미라 대표님

책약방
양유정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책약방 마을의 서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가 소멸되지 않고 세대로 전승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으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공감이가 되는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에는 삶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이질적이기보다 공감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마음을 열어 꺼내주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아온 이야기가 아픔이나 슬픔에 멈추지 않고 사는 동력이 되어 온전히 삶을 살아낸 경이로움을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소심한 책방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마을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접점이 없었던 로컬크리에이터와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7차:가치 프로젝트를 예술가 스스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새로운 창작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마을의 서사를 함께 기록하고 창작했던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도, 그 기억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바탕이 되어 후속 작업과 작품에도 이어진다면, 종달리의 또 하나의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약방 마을의 선주민, 이주민, 노인, 청년, 어린이들이 모두 어우러지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기반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가 소멸되지 않고 마을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여행길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마을과 이웃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소심한 책방 책방, 사진관, 소품샵, 의상 디자인숍 등 마을의 상점과 문화 공간에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7차:가치 프로젝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책방을 오픈 했던 2014년에는 젊은이들보다 어르신들을 더 자주 만났던 시기가, 어르신들이 읽을 수 있는 큰 글자 마을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노년층을 책방으로 이끌면서, 문화 공간이 청년들의 공간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소심한책방X책약방

민간 문화공간의 시선으로 문화예술섬 제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책약방 공간과 공간이 연결되는 기회들이 더 자주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7차:가치' 프로젝트와 같이 공간과 사람, 그리고 공간과 사람이 있는 '마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한 책방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들이 기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1년 차의 기획은 서류가 더 축소된다면 지원의 다양성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책약방 올한해, 7차:가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마을의 서사가 세대를 이어 기록되고 전승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록과 창작물이 한 마을의 기록과 창작물로 제한적으로 남기보다, 제주의 삶과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재단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알려주심 좋겠습니다.

소심한 책방 제주예술재단 지원 사업을 처음 도전해봤습니다. 지원 사업은 고루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책방에서 시도할 수 있는 기획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7차:가치 프로젝트를 거치게 되면, 자체적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리라 생각 되지만, 힘 있게 후속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프로젝트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참여 공간이 직접 전하는 프로젝트 이야기

2.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문화공간 양
김연주 큐레이터님

코마
김영현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문화공간 양은 예술가와 함께 거로마을의 역사를 작품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거로기록보관소라는 장소를 마련하고 여러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화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그동안의 작품을 활용해 기존 마을지를 아트북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 사람들이 거로마을 역사에 더 많은 흥미를 갖게 하고자 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술로 마을을 기록하는 방법과 예술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소리 채집 아카이브는 이런 여러 고민의 과정 중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역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생각을 나누고 그곳의 소리를 수집하여 보관하고자 합니다.

민간 문화공간의 시선으로 문화예술섬 제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의 예술 지원 사업은 예술가, 예술 단체, 예술 공간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가, 예술 단체, 예술 공간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방법 역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예술 공간은 예술가의 전시나 공연이 일정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운영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예술 공간의 전시장, 레지던시, 공연장, 연습실 등은 예술 단체의 사무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간 유지에 필요한 임대료나 인건비 지원이 지속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술 공간의 전시장 등의 임대료는 예술가 개인전 등의 대관료와 같은 것이고 기획자 인건비는 전시장 지킴이 사례비 등과 같은 것입니다. 제주도 예술을 국외에 알리기 위해 예술 단체의 영문 웹사이트 지원,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기 위한 시설 지원 등도 예술 공간이기에 필요한 지원들입니다. 제주도가 먼저 예술 공간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 방법을 새롭게 마련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공간 양X코마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용과 형식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예술 활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틀에 박힌 지원 사업이 아닌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1년 진행된 '제주문화예술의 섬 정책과제 발굴 연구'에서 제시된 7가지 전략과제 중 '일상 문화공간 연결을 통한 제주의 문화활기 지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를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는 '동네에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독립서점에서 한주간의 지역 친화적이고 새로운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콘셉트에서 시작되었다. 워크는 3개월간의 현장 답사와 인터뷰, 자문을 거쳐 2022년 11월 4주에 개최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권역 5개 책방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젝트를 한주간 진행하며 제주 곳곳으로 문화를 배달했다.

제주문화예술섬에 더해진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 기획 과정

① 제주문화예술섬 정책과제 발굴 연구 7개 전략과제

'일상 문화공간 연결을 통한 제주의 문화활기 지속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②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 기획을 위한 현장 답사 및 자문 회의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도의 21개 독립서점을 다니며 현장 답사 및 자문 회의를 진행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책방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

③ 공모를 통한 참여 책방 선정 및 사업 진행

2022년 10월 25일 제주시권역 1개, 서귀포시권역 1개소, 동부권역 2개소, 서부권역 1개소, 총 5개 책방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각 책방은 각자 마을에 맞춘 참신한 기획과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도민들과 소통했다. 한주간의 워크는 제주를 다양하고 특별한 문화적 체험으로 풍성하게 하였다.

참여 책방 ① 동부권역 책방 무사



독립서점 책방 무사

책방 무사는 요조(신수진)의 큐레이션으로 구비된 책을 판매하고 있는 성산을 수산리에 위치한 동네 책방이다. 인문, 철학, 환경, 비건, 인권, 젠더, 독립출판 등 다양한 서적을 취급하고 있다. 레코즈 공간은 샘플 CD와 LP를 비치했으며, 직접 들어보고 연락하여 선별한 인디 뮤지션들의 음반으로 구성되어 청음을 하는 공간이다. 책방 무사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수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며 지역 속에 녹아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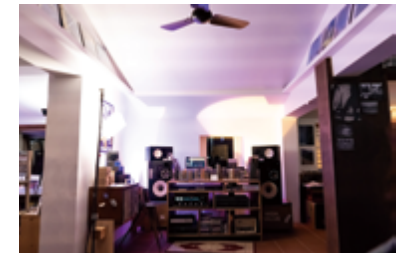


책방 무사 프로그램 '수산1리의 무사한 날들'

책방 무사는 '책'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했다. 이번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를 통해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의 진행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방향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기획했고, 청음회, 낭독회,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했다.

'수산1리의 무사한 말들'

- 11월 23일(수) 수산 시네마
- 11월 24일(목) 도란도란 낭독회
- 11월 25일(금) 꼬박꼬박 청음회
- 11월 26일(토) 수산1리 마을투어 / 관광과랑 탈춤, 풍물패와 함께



참여 책방 ② 제주시 권역 한뼘책방

한뼘책방

2018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립서점으로 지역주민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문, 사회, 문학, 예술, 독립출판 등을 취급하는 서점인 동시에 카페를 겸하고 있는 공간이다. 2019년부터 문화예술 연구 모임, 글쓰기, 필사 모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2022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시 쓰기, 라디오 만들기 워크숍 등 여러 창작 워크숍을 진행해 왔으며, 11월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를 통해 이도이동에서 문학을 라디오를 통해 공유했다.



한뼘책방 프로그램 '한뼘 라디오'

지역사회의 문화 교류 커뮤니티 활성화, 서점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주민에게 라디오 제작 및 창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되었다. 한뼘책방의 단골인 지역주민 독자들이 라디오 제작자가 되어 '우리가 애정하는 제주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3편의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했다. 11월 23일, 기획자와 독자들은 3편의 '한뼘 라디오'를 제작하고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공개방송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리플렛 형식의 '한뼘 라디오' 소책자를 발행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한뼘 라디오'

- 11월 22일(화) '우리 동네 라디오' 워크숍
- 11월 23일(수) '한뼘 라디오' 1~3회 업로드 / '한뼘 라디오' 공개방송(공유회) 개최
- 11월 27일(일) '한뼘 라디오' 소책자(리플렛) 발행

참여 책방 ③ 서부권역 그리고 서점

그리고 서점

2018년 11월 에 오픈한 동네 책방으로, 책방지기의 어릴적 꿈을 실현한 공간이다. 책이 주는 위안, 기쁨, 행복 등을 주변 이웃과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며 운영되고 있다. 책방 내부는 옛 마을 선과장 창고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으며 외부 벽면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을 통하여 꾸며 놓았다. 일년 20회 이상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을 문화를 나누고 관계를 확장시키는 사랑방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7차:가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시아, 너는 참 아름답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도내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다시 한번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와 함께하며 '시가 내게로 왔다'를 통해 지역주민, 도민들과 문화예술을 함께했다.



그리고 서점 프로그램 '시가 내게로 왔다'

마을의 시비를 활용한 다양한 농촌 체험 상품을 만들어내 '시'를 마을의 브랜드로 발굴하고 나아가 마을 구성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자는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시가 내게로 왔다'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시 낭송, 해설, 필사, 시 써보기, 시와 함께하는 국악, 합창 공연, 전시를 진행하는 종합 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서점은 프로그램을 통해 애월읍 수산리를 시와 음악, 그림으로 물들이며 문화 예술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었다.



'시가 내게로 왔다'

- 11월 21일-28일 '시가 내게로 왔다' 전시
- 11월 24일(목) '국악과 시의 만남' 공연
- 11월 27일(일) '시읽는 공술' 체험(물메 마을 텃밭, 시낭송)

참여 책방 ④ 서귀포시 권역
북살롱 이마고



북살롱 이마고

북살롱 이마고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산과 문화를 계승하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며,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문화, 예술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문화예술 생산자, 문화 향유자 간의 다양한 커뮤니티 커넥터로서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다.

북살롱 이마고에는 숨어 있는 좋은 인문서를 비롯 로컬 콘텐츠를 담은 독립출판, 생태적 삶을 다룬 책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성 있는 제안을 담은 책 위주로 큐레이팅 되어 있다. 현재에는 지역을 아카이브 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출판, 전시하고 있다.

서점 외부에서는 다양한 음악 공연, 소규모 플라마켓 등의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고는 표선면 세화리의 문화 향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운영되고 있다.

북살롱 이마고 프로그램 '제주기록_예술이 불러낸 장소의 기억'

예술을 통해 지역의 장소와 이에 얽힌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 과정을 결과물 (사진, 글, 그림 등)으로 남겨 책을 출판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을 아카이브 하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예술은 어떻게 장소의 기억을 불러내는가'라는 주제로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의 장소를 의미 있는 공동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제주기록_예술이 불러낸 장소의 기억' 박형근 작가와 함께 표선면 세화리를 탐방하며 사진으로 남기고, 홍보람 작가와 참여자 개개인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장소의 기억을 불러내 '마음의 지도'로 기록하여 공명을 일으키고 지역 내 공감대를 확장시키는 프로젝트였다.



'제주기록_예술이 불러낸 장소의 기억'

- 11월 21일(월) 마음의 지도 프로그램 - 가장 소중한 장소 그리기 / 발표하고 나누기
- 11월 21일(월)~27일(일) 마음의 지도 프로그램 영상 기록 및 전시
- 11월 26일(토) 박형근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사진 '장소의 재발견'

참여 책방 ⑤ 동부권역
이야기 가게, 일희일비



이야기 가게, 일희일비

이야기 가게, 일희일비는 김녕향, 해녀마을에 위치한 작은 독립서점이자 문화공간이다.

지난 2022년 5월 오픈한 이 공간은 엄선하여 큐레이션한 책들과 직접 출판한 독립 출판 서적을 주로 선보이고 판매하고 있다. 손으로 양장하는 아트북, 인쇄복도 함께 선보이는 독립서점이자 독립출판사이다.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만든 이 공간은 각종 강의, 책모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 참여를 통해 책 만들기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이야기 가게, 일희일비 프로그램 '가을은 유학원-감성을 담은 <가을 책> 만들기'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책 만들기'를 일상 속에서 쉽게 체험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서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일상 예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기록하고 싶은 소중한 기억들을 꺼내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고르며 자신을 표현할 소재를 발굴하며 시작됐다.

음악과 함께하는 글쓰기 시간과 감상 시간, 합동 평론 시간을 거쳐 치유와 창작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이야기, 사진으로 나만의 '가을 책'을 만들어보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가을은 유학원-감성을 담은 <가을책> 만들기'

- 11월 21일(월) 1강 일상의 씨앗 찾기, 가을 음악과 함께 이야기 싹틔우기
- 11월 23일(수) 예쁜 순간들의 나뭇잎(사진)을 모으고 엮어 나만의 <가을 책>으로 수확하기



〈문화예술섬 제주 워크〉는 4개 권역의 마을
 깊숙이 파고들어 문화와 예술을 나누며
 주민들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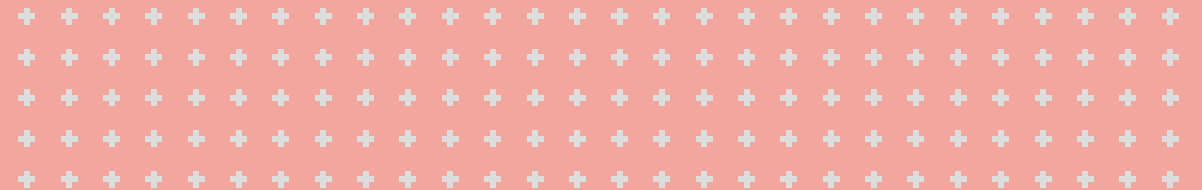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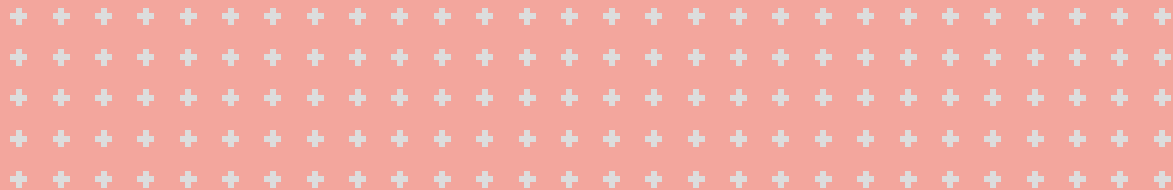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3

예술+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미션 Possible! 제주에서 예술하며 함께 성장하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예술요원은 학교나 복지시설에서 개인이 봉사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단에서는 도내 예술가, 문화 기획자와 협업해 교육 또는 공연을 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현재는 국악(대금, 판소리, 거문고, 피리)과 클래식(기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요원들이 도내 읍·면·동에서 도내 예술인 및 기획자와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을 올리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섬에 찾아온 예술요원 미션!

MISSION 1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로 읍·면 등 소외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라!

MISSION 2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단위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라!

MISSION 3

도내 기획자와 예술가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성장을 지원하라!

MISSION 4

제주 지역의 장소성과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시도하라!

예술요원이란?

예술요원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 특기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대신 특기를 활용해 봉사 활동을 하는 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2021년 5월 기준 국악 22명, 무용 49명, 음악 14명의 예술요원이 복무 중이다.

제주문화예술섬 × 예술요원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참여 아티스트



이현준 대금

-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 국립국악고등학교 강사



김민서 거문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재학 중
-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졸업
- 제37회 동아국악콩쿠르 거문고 부문 금상
- 제36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장원



박지형 클래식기타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졸업
- 제50회 이탈리아 알레산드리아 국제콩쿠르 준우승
- 제63회 도쿄 국제콩쿠르 우승



박지형 바이올린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뉴잉글랜드음악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동교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 2019 베를린 막스 로스탈 바이올린 콩쿠르 2위
- 2017 어빙 클라인 국제 콩쿠르 3위



남성훈 아쟁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국립국악 고등학교 졸업
- 제32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아쟁부문 금상

제주문화예술섬 × 예술요원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 참여 아티스트



김시현 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재학
- 제40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금상
- 제37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금상



남상동 판소리

- 중앙대학교 연희예술학부 재학
- 제4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부문 금상
- 제46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차상



김원빈 해금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국립국악 고등학교 졸업
- 제34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해금부문 은상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해금부문 금상



이준섭 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국립국악 고등학교 졸업
- 제33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피리부문 금상



박새한 피리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재학
- 제42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상(대통령상)
-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 금상

도내 예술가 및 기획자



김명은 장구

-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타악연희과 졸업
- 컴퍼니랑 동인
- 최종실, 전혁진 사사



정애선 판소리

-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 졸업
- 중앙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
- 소리계떼, 제주빌레앙상블 단원



김정현(바리) 현대무용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졸업
- 바디마인드센터링 공인 소매틱 움직임 교육자



주정민(나모) 현대무용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전문사 졸업
- 바디마인드센터링 공인 소매틱 움직임 교육자



박수현 재즈기타

- 2009 Mike Downes Bass Award (Canada) 수상
- 2009 KT 광화문 재즈콩쿨 은상 수상
- 2020 '한국음향산업 음악샘플러' POP 장르 아티스트 선정
- 2018~2021 제주 국제즉흥즉흥축제 초청 아티스트



더로그 인디

- 2021 (구)중문119센터 거리공연 <Open Mike 119> 참여 예술가
- 2021 제13회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출연
- 2021 제27회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출연



여유와 설빈 인디

- 2021 채플린 뮤직 페스티벌 출연
- 2021 아트락데이 바다를 '달·담' 다 출연
- NAVER 문화재단 온스테이지 출연



이은경(도아) 키보드

- 2021 도아의 음악공작소 음원 발매
- 2021 064 sound 컴필레이션 앨범 '흘러간 봄' [춘] 발매
- 2020 제주 프린지페스티벌 출연

도내 예술가 및 기획자

김동우 피아노

- 2022 신한대학교 유아교육과 특별강사
- 2021 돌문화공원 공연장 상주단체 음악감독
- 2021 공연 '김동우 - 프레이즈 사이의 삼' 기획 및 출연

강영철 퍼커션

- 2022 제주복합문화공간 순회 콘서트 <THE STAYPULLER MUSIC> 출연
- 2021 제주국립박물관 뮤지엄 테라피 일상 회복 콘서트 출연
- 現) 솔리스트음악학원, 제주실용음악학원 드럼 강사



A-Side 재즈 퀸텟

- 2022 이소(e_so) 싱글 앨범 여름밤 우리(With A-side) 발매



이재운 다원 예술

- 들랑 Meditation Salon 대표
- 나 돌봄 연습장, 지금 여기애愛, 사계절 숲놀이, 음악이 있는 어울림 숲놀이학교 저서
- 동국대학교 대학원 명상심리 상담학과



김한얼 피아노

- CUNY 브루클린 칼리지 글로벌 앤 콘템포러리 재즈 전공
- 2013 <Clouds> 앨범 발매
- 2016 <Improvisations> 앨범 발매



조경래 비올라

-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 現) 브랑섬홀 아시아(BHA) 비올라 강사
- 現) 제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



이소선 기획 및 연극 놀이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전문사 아동청소년극 전공
- 이야기공방 마음담기 대표
- 국립극단 청소년극 '더나은숲' 교육감독

고승의 기획 및 문학

- 2021 대교문화재단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기획 및 진행
- 2021 심야책방 북버스킹, 북토크 기획 및 진행
- 2020 문화도시제주 책방예술제 '읽다 그리고 쓰다' 기획 및 진행

이소희(이소) PM싱어슬라이터

- 201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Contrabanda Club 공연
- 2019 싱글 '연월', '서로에게 기대어 삼각형을 만들어요' 발매
- 2020 ep [마음 동화] 발매 기념 쇼케이스 및 단독 공연
- 2021 음니버스 앨범 [실] 1번트랙 '어린 나에게' 참여
- 2022 이소, 크로크노트, 사람또사람 '동그라미 친구들' 기획 및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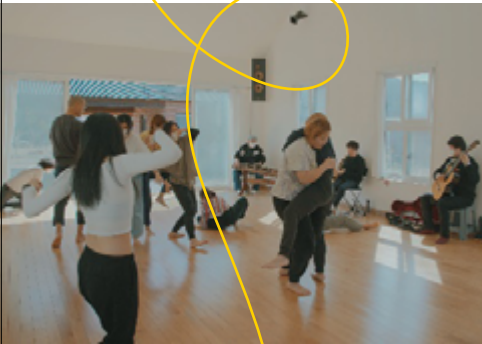


예술요원 프로젝트 음악 교육 및 공연 프로그램

제주 전역을 음악으로 물들이다

공연의 발걸음이 미치지 않던 읍면 지역에서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가 및 기획자가 함께 제주 전역을 음악으로 물들인 2022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공연·교육 몸의 연주

2022년 2월 18일부터 3월 18일 한달간 바리, 나모 무용가와 예술요원이 함께 각자의 몸과 그 움직임에 대해 알아가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공연을 선보였다. 삼달리와 표현면을 오가며 진행된 몸의 연주 워크숍은 소규모 인원이 깊게 밀착되는(DEEP-tact) 방식으로 7회에 걸쳐 긴 시간 진행되었다. 매회 다른 주제를 다양한 악기 연주와 함께 즉흥춤, 소매틱(요가) 토론 등을 진행했고, 2회의 음악(국악·클래식)과 현대무용을 콜라보한 새로운 시도의 공연을 통해 장르를 넘나들며 볼거리를 제공했다.



공연 작가의 산책길

3월 12일, 서귀포 이중섭 미술관 개관 20주년과 이중섭거리 선포 25주년을 기념한 공연을 펼쳤다. 이중섭공원에서 진행된 공연에서는 예술요원 이현준, 감만서의 국악, 예술요원 박지형, 박규민의 클래식 공연과 도내 예술가 김영은, 정애선의 판소리가 함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했다.



공연 달의 소리

4월 1일 금요일 이현준, 남성훈, 이준섭 예술요원이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오티토리움에서 도민들과 만났다. 조은별 소리꾼, 이은경(도아) 키보드리스트가 함께 아름다운 국악 음악으로 달의 소리를 도민들에게 속삭였다. 도내 예술인과 예술요원은 정통 국악 뿐만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퓨전 국악을 통해 청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공연 봄, 피어나다, Jeju

[달의 소리] 공연의 여운이 남아있는 4월 2일 토요일,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공연이 안덕면 마을을 감싸 안았다. 이날 공연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차별 없는 세상을 기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에반젤리 합창단, 최대남, 서란영 등 많은 도내 예술인과 함께 예술요원 이현준, 남성훈, 이준섭 국악인은 서정적인 대금 선율과 화려한 피리 합주곡, 대중적인 진도 아리랑으로 공연을 빛냈다.

공연 화음: 火音

4월 16일 토요일,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예술요원은 성산읍의 플레이스 캠프 제주를 찾았다. 김민서, 김시현, 이현준 예술요원은 조은별, 이은경 도내 예술인과 화음을 맞춰 성산에 흥겨운 국악을 선물했다. 화음 공연은 플레이스 캠프 제주의 요청으로 진행된 공연이었다. 성산을 찾은 도민, 관광객은 노을 지는 저녁 시간 아름다운 풍류 속에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연 책, 풍류愛 빠지다 - 예술요원과 함께하는 북버스킹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는 독립서점 '책자국' 고승의 책방지기의 기획으로 구좌읍 종달리를 찾았다. 책자국 야외마당에서 이루어진 공연은 책을 매개로 도민과 공연자가 연결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공연에 참여한 청자들이 책방지기가 정한 책 속의 한구절을 낭독하고 이에 어울리는 곡을 들려주는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공연에도 김민서, 김시현, 이현준 예술요원이 참여해 주었고, 도내 예술가 조은별 소리꾼, 이은경 키보드리스트가 함께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함께해 주었다.



공연 삼다정 예술산책: 함께라는 이름으로

4월 27일 아이갯에브리씽(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카페) 앞 쉼터에서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가가 짧은 점심시간을 문화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4월 '장애인의 달',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며 공연을 열었다. 장애인 근로자와 사회적 취약계층,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이준섭 예술요원의 피리 연주로 맞춘 조은별, 이은경 도내 예술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키보드 연주로 가요, 팝송, 민요를 넘나들며 다양한 곡을 선보였다. 아이갯에브리씽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국 공공·민간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전국 54개 매장에서 250여명의 장애인이 채용되어 근무하는 카페이다.



공연 맞닿아 이음

중문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공연은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6월 5일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움츠러든 도민들의 문화 체육활동에 대한 향유 욕구를 해소해주기 위하여 마을 지역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를 김민서, 이현준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가 더로그(홍예지, 박명규) 밴드가 찾아 공연을 진행했다.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요와 국악으로 축제의 흥을 돋군 공연이었다.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인의 협연으로
한해를 음악으로 색칠했다.



공연 여유로이

6월 6일 선셋봉고에서 진행된 공연 '여유로이'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구좌읍으로 찾아가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가가 펼친 퓨전 국악 공연이다. 이현준 예술요원은 친근한 가요 '인연'을 연주했고, 김민서 예술요원은 거문고 독주로 '출강'으로 경쾌한 국악 멜로디를 연주했다. 도내 예술가 여유와 설빈은 예술요원과 함께하는 합주 공연 뿐만 아니라 직접 작곡한 곡으로 선셋봉고를 채웠다.

교육·공연 바람따라 물결소리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는 2022년 6월 13일, 14일 양일간 가파리에서 교육, 공연을 진행했다. 가파도는 장소적 특성상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준섭, 이현준 예술요원과 조은별 소리꾼은 이 지역을 찾아 가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악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가가 협업하여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하고 교과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곡을 연주하며 프로그램은 진행됐다. 즐거운 음악으로 교묘한 섬 가파도를 채워가는 따스한 시간이었다.

공연 한밤의 청: 그림, 소리를 만나다

7월에도 예술요원은 바비 제주를 음악으로 물들이고자 동분서주했다. 조천읍에 위치한 김택화 미술관 이승연 관장이 기획한 '한밤의 미술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된 이 공연은 김택화 화백이 그린 제주 풍경 속의 국악 한마당이었다. 남상동 예술요원의 판소리와 김민서, 박새한 예술요원의 거문고, 피리 연주가 미술관을 채웠다. 국악 선율 속에서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와 산, 마을을 화폭에 담은 김택화 화백의 작품들을 도민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세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공연 조금씩 천천히

연결공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를 예술요원이 찾았다. 남상동, 조은별 소리꾼이 함께 판소리 창을 선보였고, 김민서, 박새한 예술요원은 거문고, 피리 연주로 조천읍 지역 주민의 귀를 즐겁게 했다. 총 7곡의 곡으로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를 채웠던 이번 공연은 센터를 문화로 채워 지역 주민들의 저녁시간을 행복하게 채워주었다.





공연 Harmony of Gugak and Jazz

7월 25일 여름, 국악과 재즈의 콜라보로 음악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했다. 도내 예술가 A-side와 함께한 이날의 공연은 안덕면 골로드 아트홀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으로 안덕면 주민들은 흥겨운 재즈와 국악의 하모니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육·공연 혼디 모다들영 바라보기

8월 29일과 31일, 김시현, 이현준 예술요원이 이재운 도내 예술가와 함께 혼디 지역아동센터를 찾았다. 혼디 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원예술, 국악 교육과 공연을 제공했다. 국악의 아름다움을 지역 아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소리의 흐름에 따라 즉흥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해주는 시간을 가지며 몸의 감각을 느꼈다. 소리, 향기를 매개로 소통하며 마음을 돌보고 생각을 나누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교육·공연 소리길 튼아보기

8월 30일 김시현, 이현준 예술요원이 조천읍 함덕 고등학교를 찾았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의 음악과 국악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지도 교육을 제공하고 공연을 통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함덕 고등학교 음악과는 현존 도내 유일한 음악과 이다. 전공으로 음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예술가의 교육·공연을 제공했다. 연주곡의 시연과 협연을 통한 음악적 경험은 학생들의 음악인으로서의 성장과 예술성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교육·공연 예술로 소랑소랑

가을로 접어든 10월 7일, 연결공간 프로젝트로 조성된 중문아트119에서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국악을 알리고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문아트119에서는 '예술로 소랑소랑'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었던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악 교육과 공연을 제공했다. 음악적 경험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프로그램에는 이준섭, 이현준 예술요원, 조은별 소리꾼이 참여해주었다.





공연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제 「ART&JEOJI」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제 「ART&JEOJI 2022」의 개막식을 예술요원과 도내 청년 예술가의 공연으로 장식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전면 야외광장에서 진행된 공연은 서부권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로 진행되었다. 남상동, 이현준 예술요원이 멋진 판소리와 대금으로 축제를 즐겁게 만들어 주었고, 김한얼 피아니스트 역시 흥겨운 재즈 음악으로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공연 「ART ROOM 119」

10월 22일, 김시현, 이현준 예술요원이 다시 한번 중문아트119를 찾았다. #중문동, #119, #기후위기를 키워드로 진행된 중문아트119의 원데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예술요원이 초대되어 공연을 제공했다. 12시 30분, 16시 2회 공연이 진행되었고, 중문지역의 주민, 초·중학생, 발달장애 아동이 중문아트119를 찾아 문화를 체험하고 국악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산양노을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꽃산양에서 진행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산양노을」과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가 함께했다. 지역주민들의 농업 활동으로 피로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음악 프로그램인 산양 노을 공연에의 오프닝을 예술요원이 맡아 아름다운 국악, 퓨전 음악을 선보였다. 김원빈 예술요원의 해금과 남상동 예술요원의 판소리, 그리고 김동우 피아니스트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노을 지는 산양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공연 소리, 꽃을 피우다

2022년 10월 30일, 중문 문화의 집에서 진행된 공연은 문화예술 활동이 어려운 도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하는 시간이었다. 마을의 작은 음악회로 진행된 공연은 중문 마을회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함께 준비했다. 김원빈, 남상동, 이현준 예술요원은 각각 해금, 판소리, 대금으로 마을의 행복한 시간을 가득 채웠고, 국악밴드 이강, 비올라 연주자 조경래, 조은별 소리꾼이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공연 조천 음악회: 청음(淸音)

10월 30일 연결공간 프로젝트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의 일환으로 진행된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의 공연 프로그램 [조천 음악회: 청음(淸音)]의 클로징 공연을 김원빈, 남상동, 이현준 예술요원과 도내 예술가 여유와 설빈이 맡아주었다. 공연은 '용천수와 환경'이라는 주제에 맞춰 진행되었고, 10. 29.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차분한 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조천읍 지역주민이 문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공연 JMF 119

JMF119는 11월 6일에 진행된 뮤직 페스타에 예술요원의 콜라보로 진행된 공연이었다. 김원빈, 남상동, 이현준 예술요원이 정통 국악 연주와 퓨전 음악을 연주하며 뮤직 페스타에 다양성을 더했다. 다양한 장르가 함께했던 공연 속에서 예술요원은 지역 주민과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추위가 시작되던 11월 초를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름다운 국악의 멜로디를 중문 지역 주민에게 들려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교육·공연 2022 한중일 청소년문화예술캠프 [K-풍류 워크숍]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한중일 국제교류 프로그램 2022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와 콜라보하여 K풍류 워크숍 교육과 공연을 진행했다. 11월 19일 들랑에서 진행되었던 교육과 공연은 그림에 나타난 풍류와 음악으로 느껴보는 풍류를 배우고, 하늘 바람 연꽃 차명상을 체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민서, 이현준 예술요원이 음악으로 느껴보는 풍류의 교육과 공연을 진행했고, 이재윤 명상가가 함께 프로그램을 채워나갔다. K-풍류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2022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는 긴 여정의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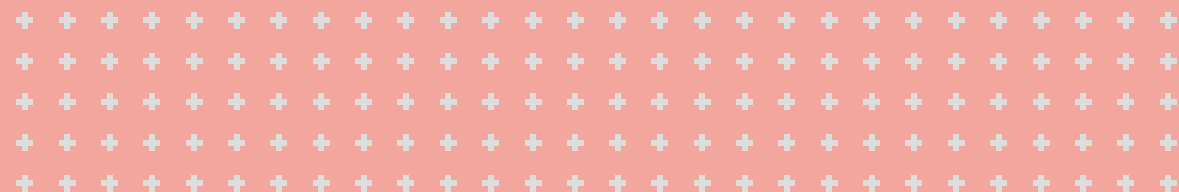
예술요원 연계 프로젝트는
2022년 한해동안 제주 곳곳을 누비며
음악의 힘으로 문화를 흠뻑했다.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4

지혜+
더하기



라운드테이블

제주라는 공동체 공간에서 도민들이 문화 고유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창작자와 향유자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가 제주의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속에서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 4대(제주권, 서귀포권, 동부권, 서부권) 권역별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2022년 라운드테이블은 권역별 문화예술인을 5명으로 확대하였고 문화예술 현장을 기반으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을 모셨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 가지 주제를 주요 논의 주제로 놓고 권역별, 마을별, 분야별로 문화정책 및 필요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2022년 권역별 라운드테이블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좀 더 폭넓게 만나고 좋은 기획과 주제로 네트워킹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통된 생각이었다.

라운드테이블 세 가지 논의 주제

1. 문화예술심 “자연과 환경”

제주 고유한 자연, 기후환경, 생태문화, 환경(실천문화 등

2. 문화예술심 “마을과 사람”

지역성(로컬리티), 마을 문화기획, 마을문화, 창의문화 네트워크, 생활/취향문화, 미래세대, 미래 일자리 등

3. 문화예술심 “예술과 예술가”

제주문화와 예술성, 예술가의 작업과 삶, 예술가의 공간, 청년예술가 등



동부권



서귀포권



제주권



서부권

“마을주민들이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환경, 우리 마을의 이야기, 우리 마을에 예술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권역별로 정말 좋은 퀄리티로 있으면 어떨까. 그런 공간들이 정말 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각개전투를 하고 있어요.”

“공간 중심이 아니라 어떤 기획자, 어떤 예술인이 연결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애착을 가지고 연결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가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공간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재능이나 예술가의 역할이 아닐까요?”

“공공서비스는 행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지만 스스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행정의 잣대로 측정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면 살아남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현상. 풀뿌리 민주주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자생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절차와 지원방식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제주형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주의 문제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모호하게 섞여 있고 순수예술로 접근하면 다양성을 위해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니까 프로그램 아까추어의 구분도 없애고 있고요. 계속 퀄리티를 높이고 고차원적인 예술의 형식도 살펴야 되거든요. 예술가들이 지역 속으로,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

“제주도가 공부할 게 많고 이야기가 풍부한 곳이라 콘텐츠를 개발하기에는 너무 좋은 자원을 갖춘 곳이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제주도의 청년예술가들은 대부분 섬을 나가고 싶어하죠. 자원이 풍부하지만 사회적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적 시너지가 나는 사람들이 만나고 네트워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너무 부족하죠.”

“제주인 놀다, 아트노크, 플레이제주, 제주미술제 등의 온라인 웹페이지 등이 너무 단편적이라서 좀 더 총중하게 연결될 수 있게 만들고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있으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협업이다. 좋은 아이팀이 있으면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초선의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각 기관의 역량 밖의 일도 협업을 통해서 큰 성과를 얻었고 시민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거든요. 제휴, 협업 등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



“재단이나 문화도시가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해준다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중심이나 큰 예산을 투입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지 않나. 네트워킹 하나만으로 제주스럽고 서귀포다운, 의미 있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제주는 책방도 많고 문화카페도 많고 예술가도 많고, 특히 민간 공간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문화예술 분야 자체가 사람이 많을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정책을 이야기하지만 정책에 사람이 없어요. 기획자, 그리고 이런 문화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업, 같은 기획을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때가 많거든요. 협업과 기획은 사람의 태도와 신뢰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섬세하게 케어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면서 흥이 나는 거죠. 예산을 주는 사람이 감시하는 체제면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술도 다양한 문화적 요구들이 생겨나면 관객들은 더 깊은 예술의 형태를 찾아다니겠죠.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수준 높은 작품들이 나와야 하지만 예술가가 너무 바쁘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예술가들이 본연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가 자체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고 봐요. 재단 뿐만이 아니라 도청 등 중장기계획과 같은 것을 세울 때도 결국은 사람이고 존중이고 소프트웨어예요. 그게 실제로 무대에 서는 사람, 존중 같은 부분들이 커버가 되지 않거 때문에 예술가는 힘든 사이클을 도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배를 짊어 노력을 하잖아요. 질적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평가항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도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줄 수 있어요.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시선, 그런 부분을 올바르게 하면 좋겠어요.”

“제주에서 예술하는 사람, 예술기관, 여러 가지는 무너진 생태계 속에서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 관, 재단, 센터, 이렇게 큰 흐름을 잡고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민간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죠. 소규모의 공간들, 서점, 소박한 형태의 민간활동들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거 같아요.”



“지역성이나 정서적인 부분을 규정해서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너무 같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해녀문화, 노지문화, 너무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성은 지역마다의 습성들이 모자이크처럼 존재하는 것인데 일반적 특징으로 정해서 규정하는 것 때문에 거부감이 들 때가 많거든요.”

“특히 서귀포권역은 흩어져 있으니깐 이런 네트워킹, 네트워킹에 집중하자. 스스로 고립을 원해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립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허브역할을 재단이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무진의 그림자 노동이 아니라 실무를 뛰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가진 문제, 예술가들이 드러낼 수 있죠. 요즘 환경이나 기후위기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지만 관심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는 돈도 있고 과학도 있지만 예술이 가진 힘이 있어요. 예술가 교육프로그램처럼 기후위기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심, 그 커다란 명제 안에 자연보호, 자연존중이 너무 당연한 키워드여야 하지 않나. 아름다운 제주가 없다면 아름다운 문화예술도 없을 거 같아요.”

“시내권은 문화의 형태를 볼 곳도 많고 정보도 빠르지만, 마을로 들어오면 있어요. 우리 마을에 있는 놀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문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런 미술관, 예술의 전당과 같이 접근성이 쉬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다르다고 봐요. 올레코스, 자연물을 보는 것도 사람들이 일정을 잡고 숙박을 하면서까지 참여하죠. 아무 긴장 없이 걷는 것만으로도 문화를 느낀단 말이죠. 제주도는 지붕 없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숨어있는 예술가들, 라운드테이블에서도 지역에 숨어있는 예술가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 이런 DB들이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가 안되는 이유는 훌륭한 예술가가 와도 제주도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니까 오는 거라고 치부해버리죠. 제주도는 숨어있어요. 양지로 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좋은 예술가들, 그런 분들을 끌어서 같이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연결들이 필요하지 않나.”

“재단이 중요하게 만들어낸 연결공간, 기치기치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심을 만들기 위한 기획인데, 작은 거점, 소소한 공간들이 연결되어 DB도 공유가 되고 시기적절하게 되면 그야말로 판타스틱한 섬이 되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끊어버리지 말고.”



“책방의 경우 책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예술이나 문화들이 작은 공간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재단이 예술가에 대한 지원들로 가는 것도 좋지만, 예술가의 직접 지원도 공간과 연결이 돼서 공간을 매개로 향유가 되면 어떨까.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제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아서요. 공간과 예술가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성이 되려면 공간과 인적자원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미 있고, 중요한 사업은 특별히 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수기획사업처럼 2~3년 지속해서 지원해주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검증하는 절차를 더 주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면 좋겠어요. 마을에서의 문화사업은 평생 중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책방들이 작은 스텍 안에 작은 공간들이 있으면 음악공연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요. 책방 안에서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연결지점들을 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함께 마을 안에 있는 미술관, 마을 안에 있는 요가, 마을 안에 있는 책방, 다양한 문화적 변화가 가능해지죠.”

“제가 지치면 여기에서 스톱되는 것들, 같이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공간에 함께 있어 줄 사람, 의논하고 기획해줄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다가 지역 청년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도내에 어떤 소상공인이나 청년을 지원해주는 네트워크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문화예술 적으로 연결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예술작업을 해도 제주에는 공유할만한 공간이 많지 않아요. 제주도에 물론 넓게 보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있겠다고 하지만, 현대미술, 난해하거나 어려운 작업들, 이해가 필요한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아요. 대안적인 문화공간, 좋은 기획자, 전시를 이해하고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 크죠.”

“예술가들이 여전히 고민해왔던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 같아요. 저희 서부권에서 정보를 얻는 거는 재단이나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예요. 전부 페이퍼로 남기만 하더라고요. 내년엔 라운드테이블이 이뤄진다면 권역별로 키워드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제주권이나 서귀포권역은 기획자나 예술가가 더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감사비가 너무 낮아요. 다양한 분들 모시고 와서 해야 다양한 문화향유를 하는데 기획자의 부재도 있고,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턱 없이 낮은 감사비, 유희공간을 개발한 공간은 몇 년 안에 다시 유희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해요. 서귀포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을이랑 뭔가를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어요. 내년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올해랑 똑같은 형태여도 지속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욕심일 수 있겠지만, 마을에 기록과 유산 같은 것들은 거점별로 3년~5년 지속사업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키워주는 방식으로 발굴하면 좋겠어요.”

“예술가, 기획자들뿐만 아니라 재단도 마을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별로 이주민이 매우 많고 그분들이 마을과 소통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둘러보면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재단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간이나 기획자들뿐만 아니라 재단도 마을과 친밀하게 지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한다면 자연스러운 플랫폼이 된다고 봐요.”

“전문예술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주도에 있는 큐레이터를 만나면 너무 바빠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으니 함께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주의 예술인들, 사람을 발굴해내는 일들, 이런 정책네트워크도 1년에 한 번만 만나지 말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어요.”



제주권 | 김명수, 문효진, 박은희, 박민희, 전규미

서귀포권 | 홍민아, 변금윤, 김하월, 차은실, 김대훈

동부권 | 김기대, 이승연, 김수정, 박다라, 양유정

서부권 | 김민수, 신의주, 이다슬, 유용예, 정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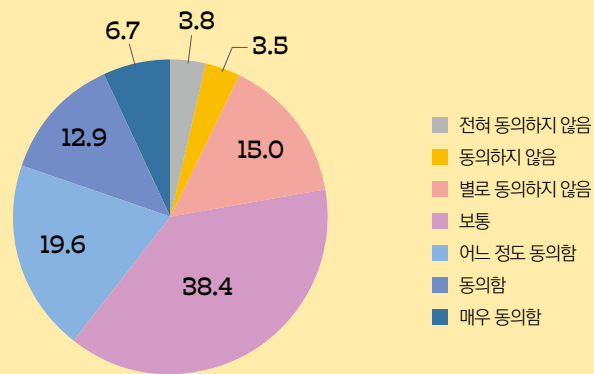
2022 제주문화예술섬 문화인식 조사

사회적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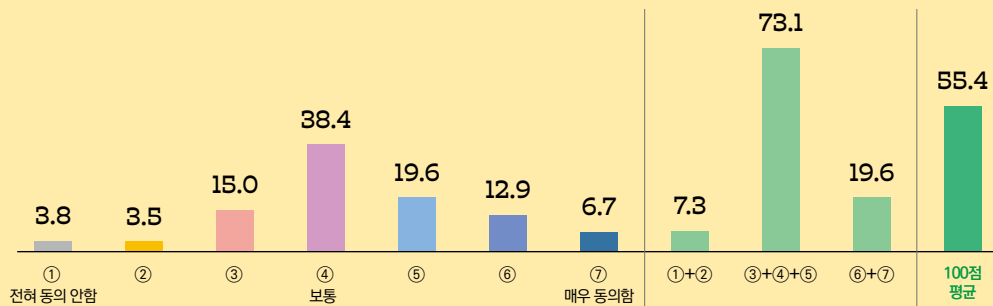
문화도시·문화예술섬 이미지 동의 정도

제주도민의 제주도 문화도시·문화예술섬 이미지 동의 정도를 살펴보면, 보통(384명, 3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동의함, 별로 동의하지 않음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동의함+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율은 19.6%로 10명 중 약 2명은 제주도의 문화 도시, 문화예술섬이라는 이미지에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이미지 동의 정도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5.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문화예술섬 이미지 동의 정도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남.

문화도시·문화예술섬 이미지 동의 정도 (n=1,000 단위:%)



문화도시·문화예술섬 인지 정도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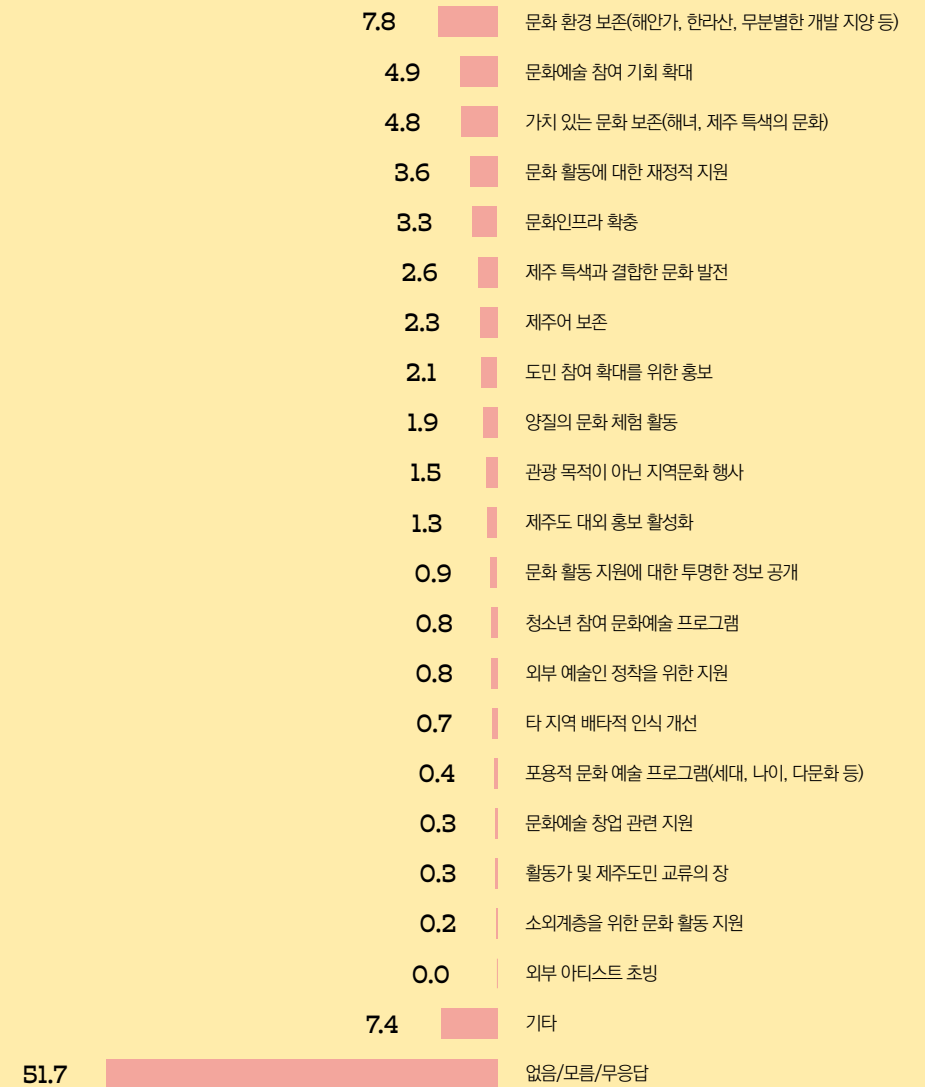


사회적 차원

문화도시·문화예술섬 발전을 위한 기타 제안

문화도시, 문화예술섬 발전을 위한 기타 제안사항을 살펴보면, 문화 환경보존(해안가, 한라산, 무분별한 개발 지양 등)(78명, 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가치 있는 문화 보존(해녀, 제주 특색의 문화) 순으로 높게 나타남.

문화도시·문화예술섬 발전을 위한 기타 제안 (단위:%)



제주문화예술섬의 전략 과제 7 & 특별 과제는?

#마을과 사람

#자연과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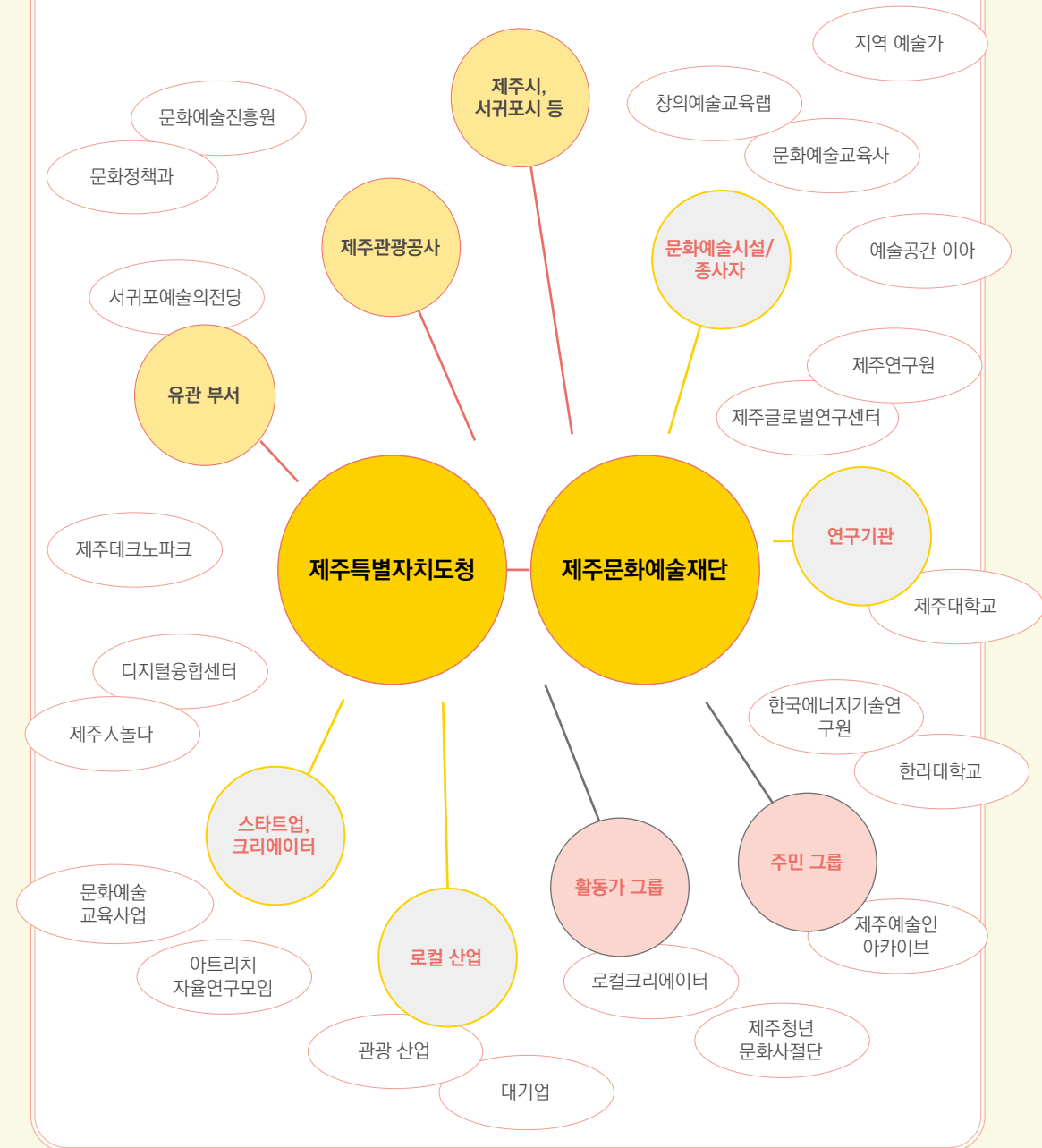
#예술가와 예술가

- 전략 과제1** 일상 문화공간 연결을 통한 제주의 문화 활기 지속
 실행 방안 1 문화예술섬제주 위크 기획 운영
 실행 방안 2 일상(민간) 문화공간 발굴 및 접점 확대를 통한 상호 연결과 협력 지원
- 전략 과제2** 기후환경도시로 선도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개
 실행 방안 1 다양한 주체와 함께 기후창의예술학교 협력 운영
 실행 방안 2 환경 위기 대응 및 기후 행동을 위한 실천적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 전략 과제3** 마을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실행 방안 1 마을/지역 특성 기반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주 아티스트/로컬 크리에이터 협력
 실행 방안 2 예술+로컬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제주 아트 메이드(JEJU ART made)', '제주그로운(JEJU grown)' 캠페인 결함
- 전략 과제4** 유휴공간의 전략적 전환을 통한 문화예술 거점공간 지속 운영
 실행 방안 1 단위 영역별 유휴공간 및 필요 지점 파악을 통한 커뮤니티 창의예술공간 조성
 실행 방안 2 창의예술공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간별 특화 지점 모색 및 파트너십 형성
- 전략 과제5** 제주 예술 시장 확대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 협력
 실행 방안 1 국내외 유명 예술 프로젝트와 협력하는 초국가 차원의 예술 유통망 확대
 실행 방안 2 아티스트와 기업 매칭으로 문화예술 가치 확산 및 안정적 창작 환경 지원
- 전략 과제6** 제주 문화 자원 아카이빙 및 오픈소스화
 실행 방안 1 제주 문화 관련 자료의 큐레이팅형 디지털 아카이브 및 문화 지도 서비스 운영
 실행 방안 2 이용자 참여로 업데이트 가능한 오픈형 데이터베이스 방식
- 전략 과제7** 제주문화예술섬 리포트 정기 발간
 실행 방안 1 제주도민 문화 인식 조사 정기적 실시 지속(2017, 2021~)
 실행 방안 2 제주문화예술섬 리포트 발행 등 퍼블리싱 사업

특별 과제

제주문화예술섬을 함께 가꾸기 위한 지속적 협력 강화

제주를 '문화예술섬'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과 문화예술 산업체, 문화예술인/종사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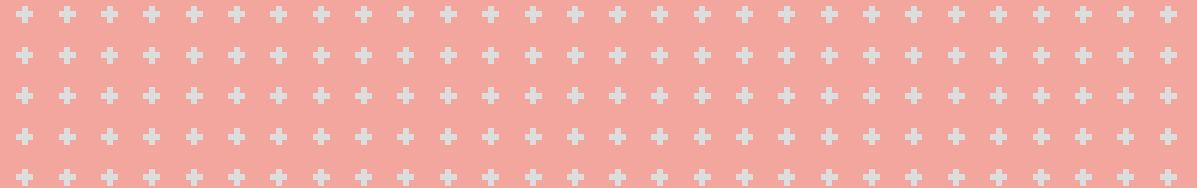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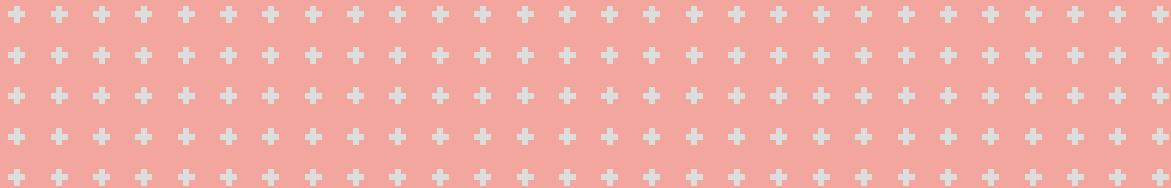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Part.5

내일+
더하기

Jeju Culture & Art Island



미래를 위한 실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우리의 실험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2022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는 제주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예술플랫폼 행사다. 변화는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가치를 모토로 지역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첨병처럼 활동하는 예술가, 큐레이터, 기획자, 활동가, 교육자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서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킹 축제이다. 이번 주제는 '미래를 위한 실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우리의 실험실'이다.

장소 제주시소통협력센터, 픽스커피 공간
일정 2022년 12월 16일 ~ 12월 18일(3일간 진행)
협력 (주)이다
사회 권미란, 오승하

Day1 인간과 미래

첫 번째 소주제 인간과 미래에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삶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사회를 엿볼 수 있는 실천적 사례들을 소개했다.

10시 30분 [여는 강연1] EVERYDAY EARTH DAY

"everyday eARTHDAY(매일 매일 지구의 날)"이란 환경 메시지를 내걸고, 일상 속에서 디자인을 통해 친환경적인 활동을 펼쳐온 윤호섭 교수의 강연과 '티셔츠 리폼 드로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윤호섭 그린디자이너는 탄소 발자국 줄이거나 제로웨이스트 운동처럼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기 보다 작은 일이라도 환경을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그린디자이너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패널 윤호섭
(그린디자이너,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



13시 [2인 대담] 김종철의 생태주의적 상상력과 대안의 근대

녹색평론의 발행인 김종철 교수의 담론과 사상에 대해 문학평론가 2인이 대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종철의 담론과 사상에서 이명원 평론가는 '비근대성'이라는 개념적 함축을 발견했다. 이것은 직선론적 발전이나 퇴행 같은 개념의 상대화를 의미했고, 서구-비서구를 넘어선 인류의 오랜 토착적 문화와 우정과 환대의 연결망 같은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게 만들었다. 두 문학평론가를 통해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에 대해서 다시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패널 고희철(문학평론가, 광운대학교 교수)
이명원(문학평론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4시 40분 [오픈워크숍1] 소설뮤지엄 <할망해방일지>

예술공동체 '소설뮤지엄'이 기획한 2022 할머니의 예술창고 <할망해방일지>에 대한 소개를 듣는 선택워크숍이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할머니들이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예술교육을 받으며 완성한 그림들이 마음 속에 품을 말들을 그림으로 풀어냈다. 일명 '할망해방일지'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할머니들의 공간 7곳이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변신한다는 점이다. 나지막한 마을을 걸으며 7곳의 마을미술관을 돌아보는 문화예술프로젝트였다. 소설뮤지엄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미래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해답을 문화예술로 보여주었다.

패널 최소연(소설뮤지엄 예술감독)
장문경(소설뮤지엄 기획자 및 연구자)



16시 [텔레강연1] 생태정원 배케, 일곱계절을 품은 아홉정원

"지구에 있는 수많은 자연과 생명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사명이다. 정원은 그 매개체로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이 베케정원이다." '베케, 일곱 계절을 품은 아홉 정원'은 베케정원의 의미와 역사, 정원의 내용을 소개한다. 내용은 크게 '일곱 계절'과 '아홉 정원'으로 구분돼 있다. 일곱 계절은 베케의 시간을, 아홉 정원은 베케의 공간을 이야기한다. 이번 강연은 일곱 계절의 흐름에 따라 베케의 식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정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패널 김봉찬(다가든 대표)

17시 40분 [라운드테이블1] 작은 실천 플로깅 <우리의 제주바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플로깅 및 플로빙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젊은 청년단체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어떠한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줍는 그들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교환되었고, 쓰레기 다크투어, 연합 플로깅활동, 환경투어프로그램 등의 활동들도 제안되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단체를 모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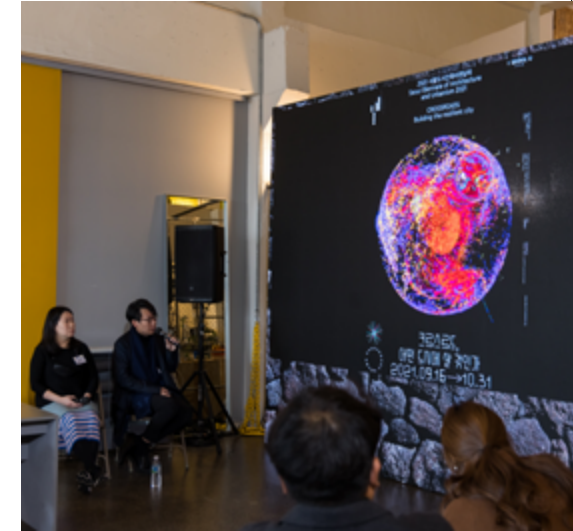
패널 **제주산희, 제주미니, 세이브제주바다, 제주알씨, 혼디, 디프다제주, 봉그젠, 플로빙코리아**



13시 [릴레이강연2] 미래도시를 향한 움직임

BARE(Bureau of Architecture, Research & Environment)의 이름처럼 건축을 중심으로 리서치, 그리고 환경에 주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신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수많은 '바람'을 잘 담아내는 건축을 꾸준히 실천하고 구현하는 바래 건축스튜디오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다. 도시공간에서 움직이고 소통하고 말하는 지능을 가진 로봇, 생명이 있는 환경 씬터 등 미래도시에서 구현될 수 있는, 또는 실험되고 있는 미래도시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패널 **전진홍, 최윤희**(바래 건축스튜디오 소장)



14시 40분 [릴레이강연3] 김치앤칩스의 예술과 기술

김치앤칩스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헤아릴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확률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랜덤한 변수를 사랑하는 작가들에게는 그 또한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김치앤칩스는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을 작품의 주연으로 초대하고 그것이 정교한 기술과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협주곡 같은 작품의 제작과정을 소개했다. 그 안에서 작가의 몫, 기술의 몫, 자연의 몫, 재료의 몫 그리고 관객과 기관의 몫이 무엇인지 공유했다.

패널 **손미미, 엘리엇우즈**(김치앤칩스)



**Day2
협업과 창조**

협업과 창조에서는 예술과 기술, 예술과 사회, 분야별 융복합 등의 협업을 토대로 전시, 교육, 공연,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간과 문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10시 30분 [여는 강연2] 미래로 가는 융복합 프로덕션 협업

가장 최근엔 확장현실(XR·Extended Reality)과 '인 카메라 시각특수효과(In Camera VFX)가 화두다. 그것은 LED를 활용해 현장과 가상을 믹스하는 것을 말한다. 다극적 콘퍼런스, 현장에 있는 듯한 콘서트 등이 모두 가능해진다. 두 번째 여는 강연에서는 VR를 넘어 '게임 체인저'로서 콘서트, 영화 등 미래형 멀티 콘텐츠에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공연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어떤 장면을 어떤 아이디어로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으며, 기술 자체보다는 관객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패널 **추봉길**(라이브랩 대표)



12.17 ~ 12.18 / 11시 ~ 17시 [부대프로그램] 북다마스 “움직이는 책방”

협업과 창조,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등 소주제와 연계하여 북다마스의 특별한 북큐레이션 제안 및 북토크



16시 10분 [특별예술공연] 한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났다. 싱어송라이터 한보나의 노래로 공연이 시작됐고, 이어서 기타 연주가 시작되면서 현대무용수 김동일의 움직임과 음악으로 자신의 쉼 곳, 집을 찾아서 떠도는 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냈다. 싱어송라이터 한보나와 현대무용가 김동일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패널 **한보나**(싱어송라이터), **김동일**(현대무용가)

16시 20분 [오픈워크숍2] 순수한 리듬과 협업

월간(月間) 춤은 무용다방의 아트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매달 창작자가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고 리서치한 내용들을 쇼케이스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월간(月間) 춤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은 무용을 바탕으로 대사나 연기, 글, 그림 등 장르의 경계를 흐려 확장시키고, 리서치의 결과를 자유롭게 실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서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작업의 메소드 혹은 움직임의 재료(요소)에 따라서 다채로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이번 월간(月間) 춤의 또 다른 매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오픈워크숍은 즉흥춤 자연, 공간, 사람과 연계한 다양한 무용워크숍을 만나보는 시간이었다.

패널 **기은주**(무용다방 대표)

17시 30분 [포럼1] 협업문화와 협업공간의 디자인

창조와 협력의 힘을 이끄는 문화와 발원지로서 협업문화와 협업공간의 디자인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날 계속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공간 유형이 코워킹 스페이스와 메이커스페이스 같은 협업 공간이다. 한 지붕 아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사무 공간을 이르는 코워킹 스페이스는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협업 공간이 작업이란 폐쇄적 네트워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고정관념에 미세한 균열을 내어 노동의 방식과 형태를 다변화하였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성은 오피스제주 대표의 사례발제와 조재원 공일스튜디오 소장의 사례발제를 들을 수 있었다. 코워킹스페이스도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사무실의 변화와 다양성, 지역과 세계의 연결 등 글로벌한 마인드로 더 새로운 공간들이 제안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패널 **정지연**(브리크컴퍼니 대표), **조재원**(공일스튜디오 소장), **박성은**(오피스제주 대표), **양석원**(자유학교 이장)



Day3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기후위기와 문화예술에서는 인류가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한 현실과 인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스스로 미래를 바꿔나가는 예술행동과 실천에 대해서 공유했다.

10시 30분 [여는 강연3] 생태적인 예술실천_흔들리는 땅 위에서 서로를 붙잡기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대에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태예술은 “연결”을, 우리가 본래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은혜는 전한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삶을 살 때, 예술은 우리에게 모험에도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데, 특히 생태예술은 우리를 서로와, 자연과 서로 다시 붙잡을 수 있게 한다. 나무와 손잡고, 동물들과 손잡고, 서로와 손잡고. 그래야,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는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지혜의 핵심이고, 생태예술은 이 연결성을 경험하고, 다시 잇게 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패널 정은혜(에코아웃 대표)



13시 [포럼2] 사회적 상상력과 공공예술

사회적 상상력은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제기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에 대한 수많은 연관요소들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학문적 상상력을 창의력이라 볼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예술,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서수원 지역개발과 재생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으로써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사례, 우도의 마을 면면에 집중하여 ‘주민참여형 예술아카이브’, ‘리서치형 예술아카이브’, ‘우도9경 아트쇼’로 구성된 <우도9경프로젝트> 사례를 함께 했다.

패널 김준기(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박찬국(수원공공예술 예술감독), 오현미, 황성림(아트랩티 대표)



14시 50분 [오픈워크숍3] 초침 소리가 멈추기 전에

제주와 UCLG 도시 간의 문화예술교류를 위해 제안된 국제생태예술교류프로젝트 <초침 소리가 멈추기 전에>의 섹션워크숍이다. 제주도는 기후환경도시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 전개를 목표로 삼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기후위기를 각 나라의 지방 도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기후 위기를 전시 주제로 삼았다. 마닐라의 랄프 에야, 제주도의 연미, 이다솔이 전시 작가로 참여했고, 프로젝트의 큐레이터는 김연주 문화공간 양 큐레이터가 맡았다. 교류세미나부터 작가와의 대화, 전시에 이르기까지 <초침 소리가 멈추기 전에> 아티스트들에게 기후위기와 예술적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패널 김연주(문화공간 양 큐레이터), 이다솔(예술가), 연미(예술가), 랄프 에야(예술가), 김진아(예술가)



16시 40분 [3인 대담] 21세기 네오 샤먼 예술가들의 행동주의 미학 -‘생명·평화미술행동’의 살림 곳

행동주의는 바깥을 위한 사유의 실천이면서 동시에 권력장 내부의 뒤집기를 시도하는 구체적 행동이념이다. 바깥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적 삶이다. 실재하는 것 밖으로 투영하는 것, 아무 곳에도 없는 곳으로 투영하는 것, 다른 장소, 아무 곳에도 없는 다른 곳으로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 반대의 것들, 그러니까 실재하는 것 안으로 투영하며 어디에나 있는 곳이 바로 바깥이다. 그러므로 왜곡되고 은폐된 거짓 삶을 제 자리로 돌리려는 실천가는 모두 행동주의자이다. 예술은 태생적으로 바깥을 사유한다. 바깥은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삶의 현장은 하나의 진리로 판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로 엮여 있으며, 이 구조적 현실의 모순이 끝없는 현실로 이어진다. 예술은 이 현실의 자양분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번 세션에서는 행동주의 미학으로서 생명·평화미술행동을 실천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패널 김종길(미술평론가), 홍성담(예술가), 고길천(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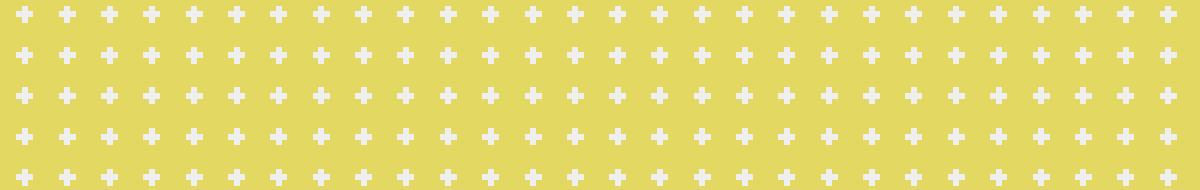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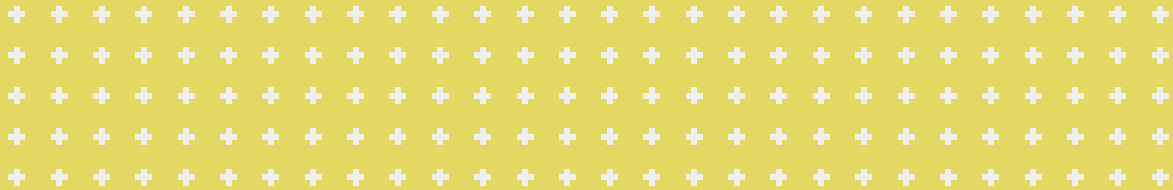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Thanks to

함께한
사람들

Jeju Culture & Art Island



모두에게 박수를

연결공간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 파트너스 김수정, 김연주, 이승연 용천수지킴이(지역주체) 이승숙, 부좌홍, 문순열, 장은심, 안정향, 정복자, 김현지, 백미라 예술인 민병훈, 안민희, 김향례, 안정향, 홍진숙, 송미지자, 고민정, 송한빈, 정한선, 이승연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참여 지역주체 김은정, 송미영, 홍은미, 위명자, 김성수, 박혜연, 박성진, 이은비, 김선영, 김현정, 노민정, 조정순, 이경미, 박지연 『조천리 용천수 '오락(五樂) 문화축제』 지도 및 리플렛 제작 김영현, 조천 음악회 '청음(淸音) 공연자(지역주체) 고경옥, 고광진, 김군자, 김명열, 김영심, 김현아, 김형진, 김형호, 김호영, 문영숙, 박성옥, 오순금, 이상협, 이충미, 진명숙, 고경옥, 조천 지역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김석범, 신화정 운영위원회 김성민, 김민수, 오성훈, 이성무, 고대지, 김미리, 고창운, 박지영 중문아트119 문화프로그램 광고은, 홍민아, 김지혜 이승연, 박란희, 허정아, 박성희, 한혜영, 사정은, 예술로 소량소량, 민지오, 무드트리, 섬의 편지, 김수정, 여유와 설빈

그치:가치

거로기록보관소 김연주, 김범진, 김영현, 김누리, 김다운, 이현태, 조은장, 허성우, 이강일, 이지연, 이안, 이정현, 이운택, 민환기, 정현영, 김지연, 양영선, 양정현 세대를 잇는 이야기 유랑단 현미라, 양유정, 이미림, 홍죽희, 강은미, 문봉순, 고영철, 박근주, 조현민, 손정환, 양승필, 우창호, 정선녀, 채태윤 그치찾게 파트너 김병수, 김종현, 최정환, 모종린, 이선철, 전정환

예술요원연계프로젝트

예술요원 김민서, 김시현, 김원빈, 남상동, 남성훈, 박규민, 박새한, 박지형, 이준섭, 이현준, 도내 예술가 조은별, 바라나모(김정현, 주정민), 박수현, 정애선, 더로그, 여유와 설빈, 김명은, 이은경(도아), A-Side 재즈 켈렛, 이재윤, 김한열, 김동우, 강영철, 조경래, 이소희(이소) 기획자 이소선, 고승의

문화예술섬 제주 위크

문화예술섬, 수산1리의 무사한 날들 수산1리 마을회, 수산1리 청년회, 책방무사 멤버십, 카페 공드리, 김정영 감독님, 허은실 작가님, 뮤지션 윤송, 풍물패(권영석님, 이성수님, 김순종님, 조원자님, 박준하님, 임동명님), 책방무사 마을 기획자 및 관계자 일동 가을은 유학원-감성을 담은 (가을 책) 만들기 박은선, 김승기, 배열희, 윤지영, 한현주, 황성흠, 정모경 PD, 김정연(중앙일보), 김은수(제민일보), 이야기가게 일희일비, 김성배, 고작가, 한지안 한뼘 라디오 장혜령, 이혜원, 문미희, 김경희, 윤혜원, 박철홍, 정유현, 채경진, 오미아, 문경주, 김미정, 윤선아, 송주연 시가 내게로 왔다 수산리 송두한 이장님, 수산리 노인회, 수산리 청년회, 수산리 부녀회, 수산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 박철성, 양우선, 꿈섬어린이합창단, 김주영, 정용혁, 강서정, 김진아, 백지영, 이강수, 이순정, 권현숙, 이창오, 정지은
제주기록_예술이 불러낸 장소의 기억 마음의 지도 홍보람 작가, 김정돌, 예혁, 유지안, 윤순애, 홍민아 장소의 재발견 박형근 작가, 강희진, 김정돌, 김주현, 김채수, 박윤정, 윤순애, 장영, 정연옥

제주문화예술섬 문화인식 조사 연구

연구팀 밸류그램하우스 본부장 김진한 책임연구원 이경태 선임연구원 김기욱 연구원 양인아 연구원 양성규

제주문화예술섬 네트워킹 데이 <미래를 위한 실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우리의 실험실>

참가자 고명철, 이명원, 김종길, 홍성담, 고길천, 윤호섭, 추봉길, 정은혜, 김봉찬, 바래 건축스튜디오(전진홍, 최윤희), 김치앤칩스(손미미, 엘리엇 우즈), 소셜뮤지엄(장문경, 최소연), 기은주, 김연주, 랄프 에야, 이다슬, 연미, 김진아, 정지연, 조재원, 박성은, 양석원, 김준기, 박찬국, 아트랩티(오현미, 황성림), 김동일, 한보나, 제주산학, 제주미니, 세이브제주바다, 제주알씨, 디프다 제주, 혼디, 봉그젠, 플로빙코리아, 북다마스
사회 권미란, 오승하 협력 주이다 디자인 스튜디오 알트 공간 제주시소통협력센터, 픽스커피 제주공단점

제주문화예술섬 정책과제 발굴 라운드테이블

제주권 김명수, 박은희, 문효진, 박민희, 전규미 서귀포권 홍민아, 변금윤, 차은실, 김하월, 김대훈 동부권 이승연, 양유정, 김기대, 김수정, 박다라 서부권 김민수, 신의주, 이다슬, 유용예, 정현덕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미래문화팀 박진우, 조민우, 민지인, 문준형, 기성이, 김연주, 유용석, 하효정, 한연숙, 김하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의 시공

2022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펴낸이 이승택

펴낸곳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fac.kr

발행일 2022년 월 일

기획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작 콘텐츠그룹 제주상회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